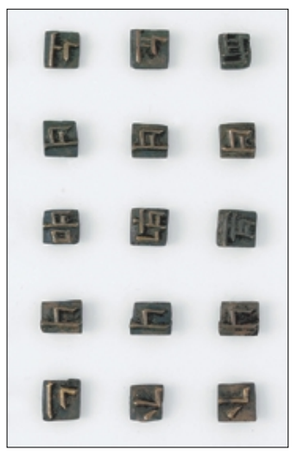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월 10일(음력 11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610 호



15세기 <능엄경언해>를 간행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의 한글 금속활자.

最古 한글 금속활자

'능엄경언해' 간행 을해자

국립중앙박물관 4일 공개

불서(佛書)를 간행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最古)의 한글 금속활자가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는 1월 4일 "한글판 <능엄경>인 <능엄경언해, 1461년 作>를 간행할 때 사용한 을해자(乙亥字)일 가능성이 큰 금속활자 30여개와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시집인 <두시언해, 1481년 作>를 찍을 때 사용했던 한글 금속활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이재정 학예연구사는 "30자를 전자현미경 등으로 확대 촬영해 분석한 결과 <능엄경언해>나 <두시언해>의 한글 자체(字體)와 똑같았다"며 "나머지 720여 활자도 1668년에 만든 활자로 간행한 각종 언해본의 자체와 같아서 1668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또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1403년)나 세종시대의 갑인자(1434년)는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을해자로 확실시되는 이번 한글 금속활자가 국내 최고의 금속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려시대 것으로 전해지는 한문 활자 2점이 남북한에 한 점씩 전하고 있으나, 출토지가 확실치 않고 수량이 워낙 적어 실제로 인쇄에 사용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노병철 기자

홍보·질 높은 서비스가 열쇠

1일부터 공원 입장료 폐지 … 문화재관람료 징수·인상 놓고 곳곳서 '마찰'

조계종 "유지 관리 비용 확보 위해 불가피" 대사회적 설득 시급

1월 2일 보은 법주사 매표소 앞. 법주사측은 '사적 및 명승 제4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이며,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매표소 직원 사명열씨는 "입장객 절반가량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소식을 들은 후 공짜로 입장하는 줄 알았다가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다는 말에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하동 쌍계사, 구례 천은사 등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법주사측은 "일반 언론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해 관람객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견된 '문제'

불교계가 정해년 새해 벽두부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가 일제히 폐지되면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일정부분 인상한 금액으로 단독 징수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67곳. 이 가운데 22곳은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공원입장료와 통합 징수를 해 왔던 이들 사찰 중 몇 곳이 일반 관람객 및 등산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항의하는 사람들 일부는 "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측은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측에 따르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507곳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유사찰의 13%만이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또 67곳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를 유지하는데 연간 807억원이 필요하며, 그 중 관람료를 통해 32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징수된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고, 사찰 및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며, 문화재 보전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관람료 인상이 문제에 불을 붙였다. 구례 화엄사와 보은 법주사는 2200원에서 3000원으로, 공주 동학사와 갑사는 1600원에서 2000원으로, 평창 월정사는 18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16개 사찰에서 100원에서 800원까지 30~40% 인상한 것이다.



보은 법주사 매표소 앞, 법주사측은 올해부터 문화재관람료를 2200원(성인)에서 3000원으로 800원 인상해 징수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측은 "국립공원입장료 수입의 10~30%를 문화재 유지 보수 명목으로 지원받았지만, 입장료가 폐지돼 지원금이 끊기는 바람에 문화재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매표소 위치다. 즉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왜 문화재관람료를 받느냐"는 항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측에 따르면 현재 징수하고 있는 위치는 대부분 사찰 경내지이고, 문화재관람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 판단돼 오랜 세월을 거쳐 자리잡은 곳이다. 단 사찰과 거리가 너무 먼 경우 문화재관람료 징수 최적위치를 재평가하고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약 6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인제 백담사, 구례 연곡사, 정읍 내장사 등 9곳은 매표소가 사찰 경내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책은 없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조계종 총무원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사안이었고 대처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몸에 와 닿는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관람료 묻고 답하기'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사찰에 22만부 정도 배포했고, 불교계 신문 등을 통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단독징수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지만, 보다 대사회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매표소 위치도 사찰 입구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정부분 재정적인 감소가 예상되지만 포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불거지자 조계종은 "유럽의 웨스트민스트 사원 관람료는 7300원, 노트르담 성당 관람료는 6600원"이라며 "우리나라 문화재관람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찰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문화재 홍보물 제작 및 비치, 탐방 시스템 정비, 문화유산 해설 안내원 상주 등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재 관리 및 보존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이 외에도 문화재관람료 징수 금액을 공개해 투명하게 처리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매표소를 이동하거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폐지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금주 36면 발행합니다

불교계 각 단체 새해 계획 A6면

• 신년 인터뷰
'선시론 연구' 송준영 시인 A9면

어린이 포교 모범 사찰 A10면
문화 포교 모범 사찰 A11면

• 2007년을 뛰는 불자
우승택 삼성증권 호텔신라지점장 A15면

저팔계를 닮으면 행복해 진다 B1면

• 선지식을 찾아서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B7면


혜정 스님


송준영 시인

알 림

제12회 신행수기 공모 심사 못해 원고 지면에 게재·기념품 드립니다

본지는 창간 이후 12년 동안 신행수기 공모를 통해 깊은 감동을 독자들과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말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응모한 작품들을 심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응모해주신 많은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내주신 원고중에서 선별해 본지의 '부처님 감사합니다' 코너에 게재하고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입장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국민의 진정한 휴식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교계는 1996년부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의 의미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2007년 1월1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관람료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문화재관람료는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1962년 해인사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정부에서 국립공원 제도를 만들고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1970년부터 속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입장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역시 문화재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67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807억이 필요하며, 그중 관람료를 통해 320억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507곳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유사찰의 13%만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고, 사찰 및 주변 탐방로 정비, 문화재 보전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 유지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인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 부담이 관람료인 것입니다. 세계 주요 문화재 관람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문화재 관람료는 턱없이 적은 편입니다.(예를 들면 유럽의 웨스트민스트 사원 관람료가 7,300원, 노트르담 성당 관람료 6,600원, 일본의 동대사 관람료가 5,000원 등) 외국의 유산에 비해 우리의 문화유산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것은 우리문화재를 보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자연과 사찰은 한 몸으로서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사찰은 수천년 동안 우리민족, 우리산하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산과 사찰은 하나이며, 그 가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찰과 스님들이 산을 지켜왔으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가 사찰 경내지로서 사찰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있는 문화로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사찰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 지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으며, 사찰은 그 문화재를 지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찰은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자연환경 지킴이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연문화 유산을 잘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정한 계행으로 동체대비 실천을…"

각 종단 신년 하례 · 시무식 갖고 새해 업무 시작

조계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이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신년하례식과 시무식을 열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조계종은 1월 5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신년 하례식을 봉행했다. 하례식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배가 바다를 건너려면 나침반이 중요하듯 종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행이 청정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다.

스님은 또 "계행이 청정할 때 내 마음이 편하고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으며, 부지런히 수행해 견성 성불해야 모든 것을 식별할 줄 아는 눈이 열려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례식은 종정스님 헌향, 총무원장스님 헌다, 삼보전 통알, 종정교시, 총무원장 인사, 참석대중 맞절, 중앙신도회 회장단 삼배로 이어졌다. 또 이날 하례식에는 보성, 활안, 지종, 동춘, 원명, 천운, 혜정 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비롯해 종무기관과 교구본사 중앙신도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시무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게으르지 않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현재에 임하는 것이야 말로 개인과 종단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며, 우리가 시무식을 통해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또 "경험과 규정에 근거하지만 보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기 2551년 정해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 5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거행됐다. 해인사=박재완 기자

특히 지관 스님은 "변화하는 나를 통해 혁신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중요한 만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종무원들의 교육 연수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고종은 4일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각 기관장, 원로회의, 승정원, 교구 종무원장 스님, 종단 대중스님들 및 신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종도로서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올해 종무행정은 서로를 위하는 덕치행정을 펼치겠다"면서 "덕치행정을 하되 승단의 위계질서는 바로잡아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은 신년사에서 "전승관 건립으로 1954년 법난 이후 종단이 새 전기를 맞았다"며 "범음범패 등 1600년을 이어온 불교 전통의식을 보유한 유일한 종단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위상을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진각종, 총지종, 관음종, 조동종도 1월 4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김주일 · 남동우 · 배지선 기자

"조계종 마을 면세를…"

지관 스님 아시타 대사에 요청



아시타 페레라(Asitha Perera) 주한 스리랑카 대사가 1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인사차 예방했다(사진).

지관 스님은 이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과 관련, 아시타 페레라 대사에게 "공사비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세를 면세해 달라"며 스리랑카 정부에 이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가세 부분과 관련, 아시타 페레라 대사는 "스리랑카 정부측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호법위원회 발족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종지종풍에 위배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할 '호법위원회'를 3월 중으로 발족시키기로 했다.

호법위원회는 총무원장 직할 기구로 산하에 지방종무원 호법위원회를 두며 총 50여 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호법위원회는 특정 사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김주일 기자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태고종 자문위원회 구성 · 학술세미나 · 해외홍보 주력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올해 초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인 태고종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태고종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92회 정기 중앙종회에서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새해 종단 주력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태고종은 올해 초부터 영산재와 관련된 학자와 행정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내에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영산재 보존 및 전승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단 예산을 대폭 늘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산재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 무용제에 참가시킬 예정이다.

운산 스님은 신년 시무식에서 "올 한해는 영산재를 통해 태고종과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종단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2007년 새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억 9000여만 원 늘어난 146억 2400여만 원으로 확정하고 교육, 포교, 복지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종회에서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선암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태고총림 선암사법'도 대폭 개정했다. 개정안은 △선암사 자율운영권 강화를 위해 선암사 재적승이 과반수로 구성된 총림종회를 구성할 것 △선암사 재적승 총회(전산대회)를 부활시켜 주지 및 총림종회의원을 선출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상월 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다양

천태종, 유적 성역화 · 출판사업 등 추진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신 100주년(2011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가칭)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연 초에 발족된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는 지난해 12월 24 · 25일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제 77차 정기종의회에서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기획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구성될 기념사업회는 상월대조사 유적 성역화사업, 학술출판 사업, 문화 예술사업, 홍보 기획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갈 집행위원단은 총무원 6부장, 종회의원, 감사위원, 종정 사서실장, 비구니 스님, 전문분야의 재가불자 등 25명 내외로 구성키로 했다.

한편 종의회는 24일 공석중인 종의회 부의장 선출에 들어가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의해 과반을 확보한 월산 스님을 새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종의회는 또 새해예산안을 심의, 총무원이 제출한 104억 9천여 만원에서 6억5천여만원이 삭감된 98억 3천 6백여 만원을 2007년 새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동방불교대 신입생 모집

4개 학과 내달 7일까지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이 종단의 선교육후득도 제도 시행에 맞춰 2월 7일까지 출가희망자에 한해 모집하는 승가학과 등 총 4개 학과에 걸쳐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불교학과와 승가학과(선교육과정)은 2년 과정으로 정규반과 통신반으로 나눠 인원 제한 없이 모집하며, 범패학과는 2년 과정의 정규반 00명을, 불교미술학과는 3년 과정의 정규반 00명을 모집한다. (02)745-2030 김주일 기자

승적증명서 전화로 발급해요

조계종 수요자 중심 종합민원서비스 2일부터

조계종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조계종은 1월 2일부터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종합민원실을 정식 오픈했다(사진).



이에 따라 각종 증명발급(승적증명서, 수계확인서, 승려증 분실재발급, 소속확인원, 재직증명원, 인감증명원) 및 승려증 재발급 업무가 통합돼 서비스가 진행된다.

특히 전화 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시설 및 사용안내도 받을 수 있다. 종합민원실 한켠에서는 전화상담 봉사자들이 한국불교 전반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준다. (02)2011-1700

남동우 기자

소백산의 생태 · 환경가치 공개토론

천태종 소백산지킴이 운동본부, 25일 개최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산업화와 지역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소백산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천태종 산하 소백산지킴이 운동본부(본부장 무원 스님, 이하 소백산지킴이)는 1월 25일 오후 2시 충북 단양관광호텔에서 '소백산의 생태 · 환경적 가치와 보전을 위한 역할 과제'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및 환경전문가 등이 소백산의 생태와 환경을 살펴보고 지키고 보전해야 할 가치와 당위성, 소백산지킴이의 추진방향 정립, 환경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성원 유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조우 상지대 교수와 김하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에는 조태제 한양대 교수, 정광진 환경참여연합 사무총장, 정용미 녹색연합 팀장, 노정호 우리무궁화사랑회 회장, 소백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교육원, 연구원 공채

조계종 교육원은 〈금강경〉과 〈반야심경〉 통일 한글본 편찬을 위해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 1명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불교학, 선학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실적 목록을 첨부해 1월 20일까지 교육원(02-2011-1812)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도 한국고승사상서를 번역 · 출판하기 위해 연구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30~45세 중 △불교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신도 5계를 수지한 재가불자 △영어와 한문에 능통하며 국제 감각을 갖춘 자 등이다. 1월 20일까지 사무국(ksmonk@buddhism.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도심 속 문화와 신앙의 대가람"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주지 김영제
총무 엄행주
교무 윤갈웅
재무 김효성
부전 이성진 김탄성
신도회장 김형대
정기법회안내
●일시 : 매월(양력)1,2일 오전 10시
●장소 : 삼광사 지관전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 전화 051)808-7111~5 / 팩스 051)803-1332
인터넷 삼광사 www.samkwangsa.or.kr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원각회
상임법사 마 일 운
회장 노기순(대행심)
총무 조춘옥(금강심)
교무 박경옥(문수행)
원주 한금순(보현행)
화주보살 김남순(여래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38번지 전화 02)392-5808 www.ilun.net

‘지혜로운 여성’으로…

불교여성개발원 법인 설립, 리더십 교육 · 가족 관련 사업 전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불교여성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이란 이름의 법인 신청서를 제출해, 1월 중순 경 설립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법인 설립은 불교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여성계와 일반 사회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불교계 여성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해 4월 김인숙 원장을 위원장으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4차에 걸친 추진위원회의를 열어 법인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1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열고, 12월에는 ‘제1회 불교여성인재양성 기금마련 바자’를 개최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인적 · 물적 토대 마련에 주력했다.

한주영 연구과장은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은 여성불자 조직화 사업을, 새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은 여성 · 가족 관련 교육을 주로 맡게 된다”며 “불교라는 테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실시했던 ‘여성불자 108인’ 선정과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은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 차원에서 진행하며, 사단법인은 여성 리더십교육, 직장 내 양성평등운동, 행복한가정만들기 프로그램 등 여성 · 가족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복한가정만들기 사업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으로 삼고, 이를 여성인력 개발과 포교의 주축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법인 설립과 함께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정기법회와 교육 등을 실시해 회원들간의 결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숙 원장은 “법인 설립을 계기로 불교계 안팎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의 공신력을 높이고 불교여성운동의 전문성과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02)722-210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해 새마음 새출발~

정해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 12월 30일~1월 1일 열린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의 새해맞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60여 명 불자들은 속리산 문장대에 올라 힘겹고 분주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새 희망의 서원을 세웠다.

글 · 사진/속리산=박재완 기자

“천성산 지하수 고갈 우려가 현실로”

지율 스님 현장조사, 조선일보에 ‘공개질의서’



한동안 경북의 산촌 마을에서 지내온 지율 스님이 다시 천성산 현장으로 돌아왔다. 조선일보의 기사가 스님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현장에 다시 불러 세웠다.

문제의 기사는 조선일보 2006년 12월 30일자에 ‘천성산 곳곳 발파 굉음…공기 단축 위해 밤샘’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 ‘환경관련 큰 문제없어’ ‘노대통령 재검토 지시 도룡뇽 사건 경제적 손실 총 2조 5161억원 추산’ 등 첨예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하수 유출은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의 최대 쟁점. 이에 대해 ‘지하수 유출 거의 제로’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율 스님은 곧바로 원효터널 공사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동안에도 천성산 유량 변화를 꾸준히 측정해온 지율 스님은 현장 인부들과의 몸싸움 끝에 공사현장에 들어가 지하수 유출 현장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사진).

뿐만 아니라 보도되기 3일전인 12월 27일 천성산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말라가는 지하수 우리는 목 탄다’는 피켓을 들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율 스님은 “언론의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지하수 유출 제로’나 ‘환경관련 큰 문제없어’ 등의 제목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천성산과 그 공사현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마름 현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왜곡 보도”라고 강조했다.

지율 스님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에 대해 조선일보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부산=천미희 기자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 터”

정신지체장애 오세철 · 박신자씨의 ‘아름다운 결혼식’ 화제

아름답지 않는 신랑, 신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지난해 12월 22일 연제부페 5층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랑 오세철(32)씨와 신부 박신자(28)씨가 행복에 겨워 짓는 표정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우원(원장 김창숙)에서 생활해온 정신지체 장애우인 이들의 결혼식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부부의 사랑과 자활의지에 보태 많은 이들의 후원으로 엮어졌다.

정신지체,뇌병변장애3급인 신부 박신자씨는 그러나 어엿한 직장인이다. 4세때 결연을 맺은 최정순씨의 꽃집에서 일을 한다. 정신지체3급인 신랑 오세철씨도 (주)부강테크 생산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여명의 하객을 축복을 받으며 진행된 이날 결혼식에서 이들 부부는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감사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신지체 장애우인 신랑 오세철씨와 신부 박신자씨가 백년가약을 맺고 있다.

부부는 결혼식과 함께 정든 성우원을 떠나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사회에 내딛는 이들의 첫걸음에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탰다. (주)부강테크와 (사)한마음장애인후원회가 신혼가구와 신혼여행을 후원해주었고 자장본원사 정도 스님과 신도들은 결혼식 뷔페를 후원했고 SK건설 영남고객센터는 신혼집을 새롭게 단장해줬다.

성우원 김창숙 원장은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시설을 떠나 사회 속으로 독립하는 이들의 결혼과 독립은 성우원 장애우들의 희망이고 꿈”이라며 “장애우들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편견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차기 정권은 하나님이 세운다?

신신묵 회장. 오마이뉴스 인터뷰서 ‘위험한 발언’

신신묵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이 “(차기)정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라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前 서울시장 공개 지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신 대표회장이 “결론적으로 (차기)정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한 나라의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대답했다고 1월 5일 보도했다.

신 대표회장은 또 “현재로선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이명박 前 서울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前 서울시장은 2년 전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신 대표회장은 “현재 개신교 흐름은 이명박 前 서울시장으로 쏠리고 있다”고 설명한 뒤 “성실한 개신교 신자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고 분석했다.

남동우 기자

종교계 사형제 폐지 한 목소리

법무부 관계자가 최근 유영철에 대해 사형집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자, 종교계에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불교사형폐지위원회(위원장 진관)와 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천주교사형폐지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월 3일 사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사형집행의 발상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21세기 최고의 가치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63명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제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

박봉영 기자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꼽히는 아토피 치유책을 사찰의 친환경 사상과 생활양식에서 찾는 시도가 본격화 된다.

생태지평연구소와 불교환경연대, 여주 신륵사, 여주환경운동연합 등은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신륵사에서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를 연다.

이번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는 아토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을 겪고 있는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산사학교에서 식습관, 생활문화 개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이번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는 1월 16~20일, 2월 6~10일 각각 초등학교 1~5학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참가학생들은 산사학교에 참가하는 동안 아토피 증상 문진표와 기초체질 검진 기록표, 일일 생활일지 등을 작성하고, 유기농 식단과 천연조미료 만드는 법, 천연치약 제조법, 죽염수 만드는 법 등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배울 수 있다.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산사학교 생활기록부, 영상 생활자료, 온라인 모임 운영, 가정 및 생활환경 오염도 노출평가 등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02)338-9572~5

박봉영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봉은사 미륵대불 설경

수도산 봉은사

21세기 한국불교의 근본도량
이제 세계불교의 중심이 되는 사찰로 거듭나겠습니다.

회주 종범
주지 명진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전화 02)3218-4801~5 / 팩스 02)544-2141
www.bongeunsa.org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르쳐요

장성 원덕사, 결손가정 어린이들 위한 불교학교 12년째



장성 원덕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설했다. 20여명의 어린이들이 법당에서 수화를 배우고 있다.

“얼굴에 보조개가 있으면 예쁘죠. 그래서 ‘예쁘다’는 말은 오른손 검지를 얼굴 볼에 대고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장성 북이면 원덕사(주지 지암) 법당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수화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새해들어 둘째날, 겨울방학을 맞아 호남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불교학교’가 개설됐기 때문이다.

원덕사 불교학교는 몇가지 특별함이 있다. 불교학교가 21일간 진행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스님과 함께 먹고 자며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 대부분이 결손가정 아이들이다. 그래서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열리는 원덕사 불교학교는 국내에서 하나뿐인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불교학교이다.

원덕사 불교학교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오직 어린이포교만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발원한 주지 지암 스님과 특수교육전문가 애안 선생님의 원력이 만나 12회째 진행하고 있다.

방학 때마다 21일간 스님과 함께 공동생활 장애인 위한 수화 필수

이곳에서는 6시 아침예불과 함께 시끌벅적한 하루가 열린다. 한창 개구쟁이인 아이들이 모여 있기에 게임과 만들기 등의 놀이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학업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는다. 스님의 지도로 ‘<부모은중경>으로 배우는 한문’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영어, 일어, 수학과 방학숙제 지도도 빠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바라고 있어 눈을 자주 마주치고, 많이 칭찬하고, 많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거든요”

대학에서 특수교육과 교수를 역임한 애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항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준다.

주지 지암 스님은 말문이 늦게 트였다. 말을 하지 못한 탓에 어려서부터 주위의 놀림에 시달려야했다. 그때 장차 커서 소외된 어린이들과 함께 살 것을 발원했다.

그런 연유로 이곳에서는 수화교육이 필수이다.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몸으로 하는 언어를 하나 더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원덕사는 일년내내 흔히 있을법한 재가 없다. 일요법회와 가정방문법회를 통해 신도들의 신행을 도와줄 뿐이다. 신도들의 정성과 사월초파일, 칠석 때 모여진 보시금은 전액 불교학교를 위해 쓰여 진다. 이렇듯 시골의 작은 사찰 원덕사는 여름, 겨울 어린이불교학교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원덕사를 나서면서 불교학교가 21일간 진행되는 이유를 물었다.

“일주일은 잘못된 습을 버리고, 일주일은 새로운 습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일주일은 새로운 습을 다듬는 기간입니다” (061)394-4837

글 · 사진/장성=이준엽 기자

‘전두환 종’ 철거

광주 무각사, 새 범종불사 회향 및 타종식 봉행

‘전두환 종’으로 치부되어 온 광주 무각사 범종이 철거됐다.

무각사(주지 광민)는 지난 12월 22일 범종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범종을 타종했다.

이날 광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종에 금이 가고, 전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철거요청을 받아 새로운 범종불사를 추진했었다”며 “3년 10개월만에 범종불사를 회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타종한 범종은 무게 1100관으로 주철장 원광식 씨(중요무형문화재 112호)가 제작했다.

한편 무각사는 5 · 18자유공원 내에 자리해 있으며, 이번에 철거된 범종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는 문구가 새겨져있어 5.18 관련단체로부터 철거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광민 스님은 “범종도 무각사와 광주역사의 일부이다”며 “철거된 범종을 없애지 않고 경내에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는 명문이 새겨진 무각사 범종.

구산 스님 23주기 추모법회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1월 1일 대웅전에서 ‘구산대종사 제2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조계종 대종사 스님,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과 현호 스님 등 문도와 불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혜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구산 큰 스님은 근세 한국불교의 대 선지식으로 세계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떨치셨다”며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자”고 말했다.

추모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송광사 탑전으로 자리를 옮겨 탑돌이로 구산스님을 추모했다. 이준엽 기자

창원 봉림사 백고좌 회향

창원 봉림사(주지 운남)는 7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봉행되어온 백고좌 법회를 회향하며 이웃 어르신을 초청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2006년 12월 29일 창원 봉림사에서 열린 백고좌 회향법회는 해인사율원장 무관 스님을 초청법사로 수계법회도 함께 봉행했으며 법회에 이어진 경로잔치에는 봉림사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 200여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정 스님의 가야금 병창, 판소리 공연, 김선희, 손현진 외 2명의 현악 삼중주, 소프라노 최민화, 봉림사 가루라 합창단의 대중가요 등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또한 2005년 5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봉림은 이날 창원시 중, 고등학생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봉림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법회를 열어 청소년수련센터 건립 원만 성취를 위한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덕명 스님 부도탑 제막식



부산 기장 안적사(주지 법안)는 2006년 12월 27일 남곡당 덕명 스님의 행장 열반 3주기 추모대재와 부도탑 및 행장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범어사 전계사 흥교 스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덕명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된 안적사에 제막된 행장비의 비문은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이 적었다. 범어사 주지를 지낸 덕명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 설립에 참여하는 등 부산불교의 기틀을 다지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 · 광주 불교단체들 희망 다짐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신도회의 신년하례법회모습.

▽광주사암련 신년법회 모습.



부산과 광주 등 지역불교계에서도 2007년을 희망의 해로 가꾸기 위한 정진에 돌입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월 4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올해 부산불교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감지된다. 승가를 대표하는 부산불교연합회가 지난해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보다 조직적인 전법을 발원하고 있는데다, 재가를 대표하는 부산불교신도회 역시 40년 숙원이었던 신도회관 개관을 앞두고 부산 재가불교의 위상 재정립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창립 26년 만인 2006년 10월 20일 24명의 이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다. 1800여 사찰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2007년 한해를 실질적인 불교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날 열린 신년하례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 부산불교신도회장 대성 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날 광주지역에서도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각) 주관으로 신년하례법회가 열렸다.

무등산관광호텔에서 ‘광주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지각 스님은 “불교를 실천할 때 불자뿐 아니라 광주시민, 나아가 국민이 모두 잘살게 된다”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흥사 조실 천운, 미타종종정 혜우, 백양사 주지 성오,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 이상진 광주전남신도회장,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 천미희 기자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입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6주 1월 4일 - 1월 10일 [340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4일[목]	울릉도	-	포항 보은사	220km
1월 5일[금]	보은사	-	구룡포	20km
1월 6일[토]	구룡포	-	감 포	18km
1월 7일[일]	감 포	-	나아리	19km
1월 8일[월]	나아리	-	주 전	19km
1월 9일[화]	주 전	-	울산시	18km
1월 10일[수]	울산시	-	간절곶	26km

제 7주 1월 11일 - 1월 17일 [142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11일[목]	간절곶	-	일 광	21km
1월 12일[금]	일 광	-	광안 행원암	21km
1월 13일[토]	행원암	동선회	관음사	22km
1월 14일[일]	관음사	구 포	동김해	21km
1월 15일[월]	동김해	태광실업(주)	정산컨트리클럽	20km
1월 16일[화]	정 산		창원시	18km
1월 17일[수]	창원시	-	내사읍고개	19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사 불교대학
기초, 경전과정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33
☏ 051)809-0926
팩스 051)803-0188

불교의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설 : 용호재가복지봉사센타,용호치매노인주간주말보호센터
용호어린이집,용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무료급식(매일300명), 노인대학(매일200명)
관 장 혜 총
전화 051)628-6737 / 팩스 051)628-6562

범어사
사회연수국장 혜 수

현대불교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합니다

대한불교 본원종
고 경 사
경북지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주지 자광 합장
사부대중일동

용암산자락에 위치한 고경사에 부처님 자비 광명이 비추는 납골당이 마련되여 있으니 누구나 조상님을 명당터에 모시면 관운과 재물이 발복하는 고경사로 연락바랍니다.

■ 납골당 관리비-1년에 2만원
■ 영구봉안부부-3백만원

오시는길 : 영주IC 15분거리 서안동IC 20분거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7-8887

대한불교조계종
천등산 봉정사
주지 문인
사부대중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번지
전화 054)853-4181

대한불교조계종
부 석 사
화엄도량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전화 054)633-3464
www.buseo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축 서 사
주지 무여
사부대중 일동

불교 교양대학 운영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전화 054)672-7579
www.chooksersa.org

재한불교 해인종
www.haiinjong.org
종정 만허 혜지

종정사서실장 덕봉

원로위원 혜성 혜명 혜민 덕산 정화 도원 효문 대광 은성

원로원장	응관	법사단장	대호	포교원장	효문
총무원장	보산	종회의장	법정	해인불무도원장	보각
교육원장	지암	사정원장	도경	사무총장	자륜
학술원장	도안				
총무부장	덕봉				
재무부장	대호	재무국장	송하		
기획부장	효산	기획국장	혜광		
규정부장	금강	규정국장	법해		
홍보부장	승공	홍보국장	성원		
국제부장	정인	국제국장	지성		
교무부장	지풍	교무국장	지홍		
교육부장	명성	교육국장	도운		
사회부장	광진	사회국장	성호		
포교부장	법인	포교국장	청호		
문화부장	운곡	문화국장	법경		
의전부장	청화	의전국장	송정		

부산1교구종무원장	덕봉	부산2교구종무원장	명성
부산3교구종무원장	금강	경남교구종무원장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지광	충남교구종무원장	혜광
충북교구종무원장	송담	서울경기종무원장	법인
강원교구종무원장	혜공	제주교구종무원장	효문
전라남북교구원장	원경	일 본 교 구 원 장	명성
러 시 아 교 구 원 장	호강	베트남 교구원장	정인

총무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46-12 낙산사 내
대표전화 (051)312-3777 FAX 322-5918
E-mail: jalun2545@paran.com
한글도메인 : 대한불교 해인종, 해인종

대한불교조계종
광 흥 사
주지 일현
사부대중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자품리 813번지
전화 054)843-2171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암사
주지 원범
원효봉사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전화 051)803-7573, 7522
팩스 051)803-7521

대한불교 관음종
소백산 안정포교원
주지 서포백제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일원리 208
전 화 054)638-0108
휴대폰 017-812-0108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 범
부본부장 자 인
목 종
김귀련
감 사 법 봉
이사일동

부산 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500호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부산불교사회복지 청소년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협의회 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장 혜 총 스님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박용하 / 부장 채종현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명현스님 / 부장 박신자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정여스님 / 부관장 정순화 / 부장 조수경
■ 금정청소년수련관 : 관장 정만스님/ 과장 윤희선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지현스님 / 부관장 김맹자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정련스님 / 부관장 서봉스님 / 부장 김민아
■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 관장 법산스님 / 소장 김금순
■ 부산시청소년쉼터 : 소장 박용하 / 국장 정현숙
■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김영곤 /
■ 부산시노인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윤기혁 /
■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 이사장 김수현 / 사무국장 서원희
■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 이사장 정여스님 / 사무국장 정득보
■ 사회복지법인 혜 원 : 이사장 원허스님 / 사무국장 이명숙
■ 사회복귀시설 컴넷하우스 : 원장 채인숙
■ 선재어린이집 : 이사장 원허스님 / 원장 임수영
■ 실비요양원 상락정 실버빌 : 원장 혜문스님 / 사무국장 윤기혁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타 :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김영곤
■ 양정청소년수련관 : 관장 범산스님 / 부관장 김금순 / 국장 장문숙
■ 영도구노인복지관 : 관장 선공스님 / 과장 박경란
■ 영주암어린이집 : 원장 범산스님 / 원감 양금선
■ 용당어린이집: 이사장 혜총스님 / 원장 배지미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이사장 혜총스님 / 관장 이춘성 / 부장 서은해
■ 조계종복지재단 부산보현의집 : 원장 이기표 / 총무 이영숙
■ 하단어린이집 : 이사장 정련스님 / 원장 이정오
■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정스님 / 기획실장 장병주 / 부장 한승미

사무국장 이춘성 간사 김영곤, 서은해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강선태
교직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426-7
신동아오피스텔 5층
전화 051)711-0700~2 팩스711-0704
www.psbuddhism.org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부설>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회장·이사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김성림
부 회 장 황진옥 배태순 이상률 조문환 권승렬
사무총장 김창석 서병흔 이대원성
사무총장 홍정표 재무총장 황국근
아카데미 운영위원장 이숙희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3-2021 팩스 051)853-2036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般하는
釜山佛敎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최용원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김종태 배영호 이근철 지호경 이달수 임정웅 한기승
감 사 안인성 이수환
총무이사 신병호 재정이사 이학성 재정이사 이학성
재정자문이사 김정웅 부총무이사 이규인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번지
부산불교실업인회회관4층
전화 051)818-9914 팩스 051)818-9916

2007 불교계 단체 '이건일 해요'

내실 다지며 세계무대로 '발길'

해가 바뀌고 달력을 바꾼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절인연은 모든 이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암담한 현실이라도 그 안에서 희망의 빛을 찾고자 한다. 600년만에 돌아온다는 '붉은 돼지의 해' 라는 수식어에는 내일을 향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정유년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어 나갈 불교계 주요단체들의 새해계획을 들어본다.

독서문화 증진 위한 각종 사업 전개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원택 스님**



출범 4주년을 맞는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지난 3년 동안 벌여놓았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맞추어 추진하는 올 사업은 독서문화 증진에 목표를 둔 각종 도서전과 독후감 공모, 좋은 불서 선정 등이다.

서울국제도서전 등 교단 내외의 각종 도서전에 활발히 참여해 독자들로부터 불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과 수많은 불서 가운데 독자들이 꼭 읽어야할 불서를 제시하는 것은 올해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1사찰 1도서관 갖기 운동, 회원사들의 결속 강화 등은 시기를 국한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사업 · 재가화엄학림 상설화

(사)자비신행회 이사장 **현장 스님**



광주 전남지역 불자들의 자비, 신행 공동체인 (사)자비신행회는 새해에도 복지와 교육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존의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롭게 호스피스사업을 펼쳐 나간다. 불교호스피스 아카데미를 개설해 불자 호스피스를 양성하고, 하반기에 광주에서 본격적인 호스피스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재가화엄학림'을 상설화시켜 불교를 배우고자하는 이는 입학과 졸업절차 없이 언제든 강의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차 문화아카데미를 활성화시켜 병원 환우와 가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찻집'을 개설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

불교디지털 사전 · 총람 발간, 국제포교도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



불교 현대화를 위한 '불교디지털사전' 보급과 한국불교 현황을 총결집하는 '한국불교총람'의 발간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신행개혁운동인 '청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교의 생활화를 사회 속에서 구현하고, 몽골 불교지원 지속, 미주 · 유럽 등의 불교교류를 통한 국제포교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행활동의 지평을 더욱 넓히기 위해 불교대중 법당 '다보원'과 사회교육장인 '불교문화센터'의 역할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다보사 다보수련원의 기도, 법회 정례화 및 청소년, 성인 대상 수련회를 많이 열고, 불교 각 단체의 행사 및 교육 지원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불자 조직화 네트워크 구성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 여성불자 조직화와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하에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가칭)'을 설립해 여성 · 가족분야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제3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사업을 추진해 불교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단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회원사업을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의 인적 ·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여성불자의 새로운 실천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바람직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여성의 지혜로 세상을 보살피는 단체로 자리매김 하겠다.

사찰경영 연구 · 국제협력사업 중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성관 스님**



조계종단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희망의 대안을 찾는 해로 삼을 것이다. 종단과 사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종책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인으로 종책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지난해 '사찰경영'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킨 사찰경영 연구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현행 종법과 제도에서 개선해야할 부분을 추려내고 종단과 사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캄보디아에 설립한 종합교육 · 보육시설인 '아름다운 세상 캄보디아(BWC)'내 초등학교와 진료병원을 개원하고 종단 국제협력사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주요사업이다.

창립 20주년…전문화된 사업 개발

(사)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



그늘진 곳에 빛을 주는 일을 묵묵히 해온 (사)동련의 원력이 2007년엔 짱하고 햇빛을 받았다. 어린이포교의 해를 맞은 동련은 어느 해보다 바쁘고 알찬 계획들로 가득하다. 창립 20주년이라는 성년을 맞아 보다 내실을 다지는 사업을 펴겠다는 기본 골격에 충실하며 동련 직접 사업은 물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한불교교사대학, 불교교육연구소, 동련동화구연회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사업으로 동심에 파고들 계획이다. 특히 대불어는 어린이포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 및 육성하고 전국어린이 법회 현황 조사를 통해 어린이 포교 정책의 자료를 제공하며 20년 어린이포교의 노하우를 담은 20주년 책자도 펴낸다.

'1만 가족공동체운동' 초석 마련이 핵심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올해 사업 가운데 핵심은 '1만 가족공동체운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1만 가족공동체운동은 신행으로 이루어진 가정 · 사회 · 국가 정화운동이자 개혁운동으로, 이른바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식 참여불교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후 재산 10% 기증운동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불교운동의 재정확충은 물론 불교의 사회화 운동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계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설기관인 (사)불교아카데미, (사)밝은세상, 교단자정센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의 독립경영과 전문성 강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회관 건립 · 각종 불교DB 구축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신도회관 건립. 오랜 숙원인 이 사업은 현 위치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회관을 지어 신도들의 자율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불사이다. 불교DB센터를 설립해 불교 관련 각종 자료 DB를 구축, 불교정책 개발과 인적자원 관리 및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조사업단 설립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은 신도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점에서 '대선 공약 개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광역시도의원 불자회 구성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회 · 지부 설립하며 '초록보살단' 결성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창립 7년을 맞는 정해년, 불교환경연대는 그간의 활동과 업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해로 삼을 것이다. 지역별 현안을 다룰 지역조직 지회 · 지부와 불교환경운동의 도우미 초록보살단을 창립해 불교환경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 논의를 시작한 환경 5계를 제정, 선포함으로써 불교적 생태관을 불교계와 사회에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다. 또한 특별환경주간을 설정해 환경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환경영화제, 환경음악회, 환경페스티벌 등을 전국의 사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불교적 생태관을 바탕으로 한 환경유치원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구호지역 스리랑카 · 몽골 등으로 확대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



5차 천일결사를 마무리하고 6차 천일결사에 돌입하는 올해 정토회는 조직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창립 20주년을 맞는 내년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조직 안정화와 사회참여활동 확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하 조직인 (사)JTS와 (사)에코붓다, (사)좋은벗들의 활동방향을 잡았다. JTS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구호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구호지역을 스리랑카, 네팔, 몽골, 라오스로 확대해 나간다. 에코붓다는 쓰레기제로운동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내 확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좋은벗들은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조사 연구사업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술용어 표준화 · 결집대회 준비 박차

한국불교학회 **이평래 회장**



△불교학술용어 표준화작업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 준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불교학술용어 표준화작업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이 시대의 언어로 불교를 담아낼 수 있도록 불교학술용어를 표준화하는 의미 있는 불사다. 또 2008년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를 원만하게 회향하기 위해 합리 · 조직적으로 준비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각 대학교가 번갈아 학술발표회의를 주관토록 운영시스템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불교계 학술대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장소와 인력동원'의 문제점 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교교육 · 케어복지 · 문화포교 강화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



올해 분야별 교육사업에 가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포교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나가겠다. 특히 케어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계층포교에선 종단과 발맞춰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중점을 두겠다. 불교의 미래가 어린이 · 청소년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계종 포교원 및 산하단체들과 연대해 찾아가는 포교를 실천한다. 일반포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소양 제고를 위해 한문반, 경전반도 개설 ·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유산해설 분야를 강화한 문화포교도 확대해 나가겠다. 포교 일선에 나선 포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 마련에 충실하겠다.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 주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월정사 종무실, 제4교구 월정사 불교대학, 박물관 문화대학, 문수청소년회,
연합신도회, 거사림회, 바라밀회, 대관령불자회, 운전불자회, 진부신도회,
청년회, 린이 자모회, 연꽃합창단, 연꽃유치원 자모회, 불교학생회,
월정 선우회, 월정 사물놀이패, 강릉신도회, 강릉장애인복지관

사부대중일동 합장

정해년 새해 두루 법체청안 하시옵고 만사여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홈페이지 : www.woljeongsa.org
종무소 : 033)332-6661~5 Fax 033)332-6915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 주 사

조 실 범 행
회 주 혜 정
주 지 도 공

부 주 지 무 상
총무국장 원 장 교 무 국 장 장 원
사회국장 도 연 호법,도감국장 현 성

사부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사무실 : ☎(043)543-3615, 8655
원주실 : ☎(043)543-4755 / 팩스(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종 종정 해인총림 방장 도림 법전
주 지 연암 현응

총림대중 일동

www.haeinsa.or.kr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전화 055)934-3000 팩스 055)934-3010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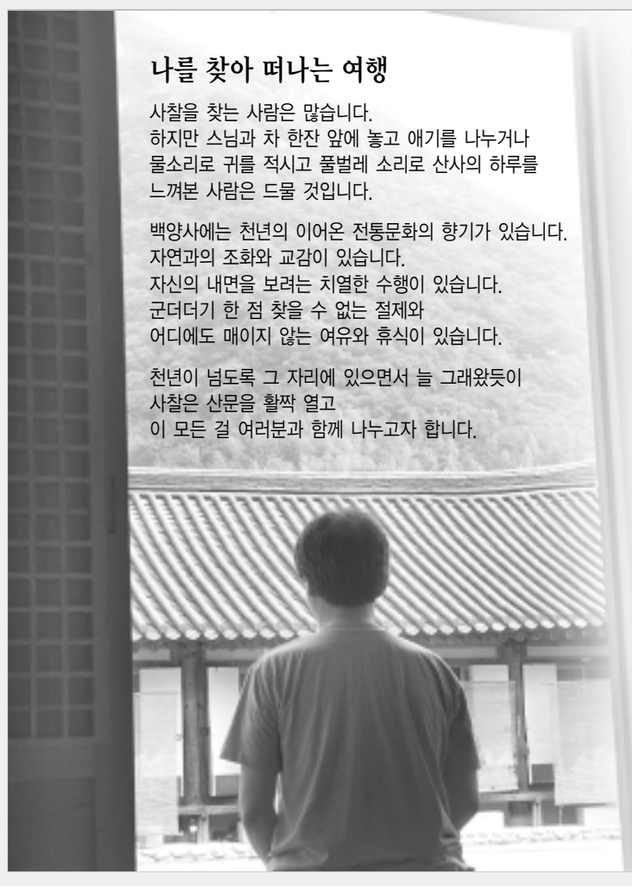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조 실 지 유
주 지 대 성 유 나 인 각
부주지 계 전 강 주 지 오

총무국장 범 산 박물관장 경 선 재무국장 원 범 교무국장 지 선
포교국장 무 관 연수국장 혜 수 원 주 서 상
총무부국장 도 림 신도회장 박정현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051)508-3122~7
〔www.beomeosa.co.kr〕



"수행으로 가꾸는 참된 삶"

백양사 참사람 동계 수행 템플스테이 참가자 모집안내

◆수련회 일정
- 1차 2007년 1월 25일(목) ~ 28일(일) 3박 4일
- 2차 2007년 2월 1일(목) ~ 4일

◆접수기간 : 1월 5일(금) ~ 1월 21일(일) 3박 4일
◆참가대상 : 일반성인 및 학생(중학생부터 참여가능)
◆준 비 물 : 세면도구, 양말, 여벌 옷(내의 및 방한복), 우산, 등산화, 필기도구 등
◆참 가 비 : 80,000원
◆접 수 처 : 백양사 홈페이지(www.baekyangsa.org)를 방문하여, 참가신청 하시고, 종무소 전화 061)392-75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기획국장 성 호 교무국장 성 무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법 기
포교국장 남 전 호법국장 도 정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주 지 중화 법타

부 주 지 법 일 연수원장 혜 해
총무국장 하 종 기획국장 장 적
교무국장 본 명 재무국장 원 범
포교국장 명 강 호법국장 선 조
사회국장 적 연

종립 은해사승가대학원
원 장 요 산 지 안
교무처장 정 인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9 / 팩스(054)335-0293
〔www.eunhae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6 교구본사

孤 雲 寺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송암 혜승
주 지 남전 호성
총무 노현 기획 지현
교무 성공 재무 도륜
사회 등운 호법 정우 포교 웅담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성민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하

사부대중 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전화 054)833-2324 / 팩스 054)834-6935
홈페이지 www.gounsa.net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성지

모악산 금 산 사

회 주 태공월주
주 지 벽산원행
부주지 원 광

총무 원 혜 기획 덕 산
교무 대 명 재무 도 안
사회 석 문 호법 원 성 포교 덕 림

신도회장 김백호 외 신도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 E-메일 : geumsansa@hanmail.net

우리 '화계사' 대중은 삼가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으고 정해년에는 이렇게 살 것을 서원합니다.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복을 일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 각 산 화 계 사

회 주 설 정
주 지 수 경
국제선원장 현 각
신 도 회 장 송석구
차호법행 외

사부대중일동

▣교육강좌
· 기본과정(3개월)-주간반 : 매년 3, 9월 개강(화요일 오후 1~3시)
주말반 : 매년 6,12월 개강(토요일 오후 5~7시)
· 불교대학(2년)- 매년 3월 개강 수요일 오후 1~4시
· 합 창 단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
· 영 어 반 - 매주 일요일 오전 8시30분
· 중,고 수학반-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기도 및 법회안내
· 일 요 가 족 법 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국제선원참선영어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수 선 회 (참 선) 법 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청 년 회 법 회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학 생 회 법 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어 린 이 회 법 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철 야 정 진 -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 철 야 삼 천 배 정 진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9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 전화 02)902-2663 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奉 先 寺



홈페이지 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 : 나만의 법당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설산 철안
부주지 취봉 정원

연수원장 수 월 재 무 혜 복
총무국장 가 산 사회국장 명 성
기획국장 초 격 호법국장 혜 만
교무국장 도 암 포교국장 지 학
종책실장 송 묵 총무과장 혜 문
포교과장 법 이

능엄학림 대중일동
연꽃유치원, 인창경로식당, 장자어린이집

▌신도회
신도총회장 돈오
신 도 회 장 관음행
총 무 부 장 도피안
재 무 차 장 청정안. 자재행
포 교 부 장 수경화
홍 보 부 장 수반아
문 화 부 장 묘관음
방 생 부 장 정념화

서울지역장 만덕화
장현지역장 지혜림
오남지역장 자비안
구리지역장 원광등
사능지역장 지혜심
포천지역장 환희행
광릉내지역장 문수행
퇴계원지역장 대길천
의정부지역장 진불심

거사림회 회장 달천
산악회 회장 원명
합창단 단장 본원심
합창단 지휘자 천화행
육법공양단 단장 수월화
어린이회

▌교구신도회
사 무 장 이희준(법운) 회 계 권정태(묘성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전화031)527-1951, 5974 / 팩스 031)527-8568

신년인터뷰

송준영 시인

선과 시를 하나로 품어야 '참 사람'

정해년 새해에도 선에 대한 문단의 관심은 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선시(禪詩)에 대한 문단의 관심이 점차 가열돼 왔다. 그러나 이제 관심의 범주를 벗어나 문예지들이 앞 다투어 선시 관련 특집을 다루는 등 선시가 새롭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선시에 대한 관심만 팽배할 뿐, '문학 이론'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반면, 선의 세계에 대한 명철한 인식이 보편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를 둘러 싼 담론이 전개되는데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시를 쓰는 것'에 있지 않고 인간이 갖추고 있는 '본래면목(佛性)'을 깨치는데 있으며 선시는 그 깨침의 경지를 노래로 드러내 보이거나 그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 방편을 문학이론에 대입해 해석하는 것이 낳을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은 문학에서 선시를 대하는데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는 선시를 문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선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결론으로 통한다.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을 두루 참방해 진리를 구하고 마침내 백양사 방장이었던 서옹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은 재가 선객. 40년이 넘도록 선 수행을 해 온 송준영(61 · 계간 〈시와세계〉 발행인) 시인이 지난해 가을 〈현대 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를 펴내 주목 받은 바 있다. 새해 회갑을 맞은 송 시인은 "나를 의심이 끊어진 자리로 인도해 주신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제 여생을 선시 연구와 보급에 매진할 것"이라는 발원으로 새해를 맞았다. 신년 벽두(1월 2일) 강릉 중앙시장 한 복판에 위치한 〈시와세계〉 사무실에서 송 시인을 만났다.



새해에 선시 이론과 작시법 체계 세우기를 발원한 송준영 시인.

반상합도 · 초월은유 등 선시 이해의 열쇠

문단엔 문학사적 의의 · 선시론 · 전문가 없어

선도리 · 수사법 · 시론 밝은 작가 나와야

현대 · 전위 선시 연구 보급에 매진할 터

▲최근 펴내신 〈현대 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는 그간 선시에 대한 문단의 관심을 총 결산 한 느낌을 줄 정도로 스케일이 큰 노작입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요?

-5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부여 받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열여덟 살 때 영주 부석사에서 발심한 이후, 마흔을 넘어 서옹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선 수행과 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시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시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를 걸고 선의 문을 두드린 사람만 알 수 있는 일물 (一物)이 있습니다. 유일물(有一物)이 빠진 상태에서 선시를 재단하는 것은 사구(死句)를 한 번 더 죽이는 꼴이랄까요? 제가 본 조사들의 게송을 보다 활발하게 풀어 보고 그 의미를 여러 사람과 함께 이해하며, 혹 '아하' 하고 무릎을 치는 풍광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이 책을 내게 하였습니다.

▲선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선시는 내용상으로는 선사상을 시적으로 표현한 언어양식을 말하겠지요. 곧 선수행자들의 선적 체험, 선수행으로 체득된 오도의 경지를 표현한 시입니다.

선시의 수사법으로는 압축, 절연, 기상, 모순, 병치, 사물의 가탁에 의한 형상화 등 현대시의 수사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선시에서 종횡무진으로 나타나는 수사법은 모순적 어법입니다. 세분하면 선시의 반상합도(反常合道), 초월은유(超越隱喩), 무한실상(無限實相)이 그것이지요.

선시의 반상합도란 우리가 정상이라 규정하는 일상을 돌이키고 뒤틀어서 정상과 비정상이 융통하고 회감하여 수승된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선시가 거의 이런 수사법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부대사가 노래한 "빈손에 호미들고"나 "다리는 흘러가고 물은 흐리지 않네"하는 시구와 조선시대 소요 태능의 "물위에 진흙소가 달빛을 밭 간다/구름 속 나무말이 풍광을 밭 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계야말로 바로 선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반상합도에 의한 빼어난 세계이지요.

다음, 선시의 초월은유는 이질적인 두 사물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는 비유, 곧 비동일성에서 동일성을 발견하게 하는 은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선시의 반상합도에서 나타나듯이 'A는 A가 아니므로 A이다'라는 선시의 모순어법을 바탕으로 선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양변의 견해를 융합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비유상태를 말합니다. 서산대사의 "진흙은 푸른 돌 속의 뼈"나 조선 말 무경선사의 게송인 "일이삼사로 가고/사삼이일로 오라"와 같은 시행은 선문답적인 초월은유입니다.

마지막, 선시의 무한실상이란, 서구의 상징주의자들은 일체 현상세계가 허구세계이며, 궁극적으로 상징세계로 간주합니다. 선의 입장에서는 이 서구의 상징이란 바로 색이나 가상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체의 만물을 뜻합니다. 곧 공(空) 실상(實相) 본체(本體) 본성(本性)과는 상대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선에서는 정신/물질을 이원화 하지 않습니다. 곧 실상이란, 상징에 남아있는 논리적 고리를 단절시킴으로, 제자리로 환지본처하게 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표징일 뿐입니다. 따라서 선시는 많은 생각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직관시킬 뿐입니다.

▲현재 한국 문단에서 선시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김춘수 시인은 말년에 우리나라 당대 시들을 분류한 실천 비평서인 〈김춘수사색사화집〉을 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시들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 서정시의 계열. 둘째, 피지컬한 시의 계열. 셋째, 메시지가 강한 시의 계열. 넷째, 실험성이 강한 시의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라나 고려 때부터 우리 민족의 정신적 역사가 이어지는 선시 계열은 어디로 갔는가? 혜심의 게송, 태고나 나옹의 선시, 서산과 경허의 우리 체형과 자연에 꼭 맞추어진 선시의 그 맛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현 우리 문단에서는 그저 선시란 이름만 있고 선시의 문학사적 의의나 선시론은 어디에도 없으며, 수사법은 정리조차 되어있지 않고, 대략 선시의 수사나 선미는 위의 사색(四色)의 시들 속에 녹아 있을 뿐, 어떤 위치도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선이나 현대시에 대한 반상합도(反常合道)된 통찰의 시선과 집요한 전문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매한 질문이 되겠지만, 오늘날 '선시 작가'가 있다면 그는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선시 작가'를 규명할 코드가 있는지요?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다' 하고 통증 해야 하겠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기의(의미)/기표(표현)'로 나눌 때, 의미상 완전히 선을 실참실수한 선객이어야 가능하며, 한 쪽으로는 동양의 시론과 정통적인 수사법에 밝아야 하며, 또 서구의 시론과 수사법에 의해 작시를 할 수 있는 분이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적으로 선불교에서 이르는 적조(寂照)가 동시(同時)임을 철증한 사람의 몫입니다. 외적으로는 동서양의 수사법으로 시를 작시하며 시론에 밝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선시의 종류를 선리시, 선취시 등으로 분류하여 왔습니다. 선도리에 밝으면 더 할 나위없겠지만, 앞서 얘기한 선미, 청량(淸凉) 명징(明徵) 단순(單純) 함이 시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선취시 풍이 오늘날 대다수 선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도 광의의 선시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적인 삶'과 '시적인 삶'을 정리해 주신다면 거기서 '선시 같은 삶'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분류 속에, 우리의 삶을 전성전일(全性全一)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암 선사의 〈십우도〉에 '입전수수(入鄽垂手)'란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문에서는 '이류동행(異類同行)'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동사섭의 보살도를 이르는 것이겠지요. '선적인 삶/시적인 삶' 이런 양분된 사유 자체는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에 의해서지요. 우리 선문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나눔은 없었습니다. 불이(不二)라 하지 않습니까?

잠시 서구의 형이상학의 이념적인 흐름을 짚어 보면 ' 플라톤의 이데아(Idia)나 데카르트의 사유주체(Cogito), 루소의 자연의 말(Logos), 헤겔의 관념론적 절대인식과 후설의 현상학의 의식주체와 직관 등이 모든 철학적 체계는 지금의 형이상학의 주체를 형성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근세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인 라깡이나 데리다 등에 의해 이런 문제가 해체비평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선적 사유와 유사한 것이 발견되곤 합니다. 곧 형이상학론자들은 자기 동일성을 상정하고 이로부터 두두물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분법적인 사유는 선문에서 말하는 분별간택심의 본향을 이르는 말이라 읽힙니다.

살펴보면 정신/물질, 자아/타자, 긍정/부정, 본질/응용, 적/조 이 모든 분별을 앞 쪽의 정신, 자아, 긍정, 본질, 적(寂)에 포인트를 두고 상호 차례가 관념적으로 합리화시킨 체계이지요. 그렇지만, 일찍이 6조 혜능스님은 상대적 관념을 모두 불이로 말했듯이 우리 선불교에서는 고요(寂)가 있고 다음에 되비침(照)이 있음이 아니라, 적조동시라 통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 선객/시인 '이 따로 있음이 아니라, 선객이면서 시인, 이것이 선시적인 불이의 삶일 것입니다.

▲새로 맞는 2007년은 큰 수술을 한 뒤 5년을 넘겨 '안전권'에 드는 해이고 회갑을 맞는 해이니 남다른 계획이 있으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서구적인 수사법을 배우고 익힌 것에, 선의 세계를 같은 문장과 언어 안에 만날 수 있도록 애쓴, 여러 시들을 묶어 시집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꼭 쓰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선시론〉입니다. 이에 관해 저는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 한자로 쓰여진 선시를 '고전선시', 근대에 이르러 한글로 쓰여진 선시, 즉 비교적 전통적인 수사법에 의한 '현대선시'와 서구의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사법으로 쓰여졌으나, 단순 청량 명징과 같은 고전선시에서 나타나는 선미가 풍기는 실험적인 시를 '전위선시'(Abant garde-Zen poetry)로 명명하고 당대 시인들의 시를 분류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욱 체계 있는 〈선시론〉을 출간할까 합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정해년 새해 마가스님 틱낫한스님과 함께 떠나는 명상여행

베트남, 앙코르왓 6일 · 베트남 남부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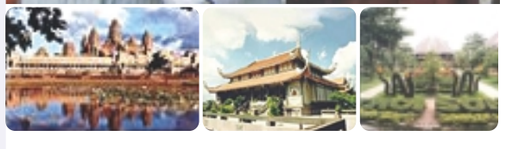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정해년 새해을 맞아 베트남 현지에서 틱낫한스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명상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찾아 마가스님과 함께 떠나는 명상여행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제여행사 대표 구광국 합장

마가 스님
2003년 중앙대학교의 명상 강의와 마곡사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신을 느끼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신 스님입니다. 그런 스님이 이번에 정념 수행자이신 틱낫한 스님을 친견하고 한국 불자들에게 정념 수행을 전하고자 베트남에서 '명상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틱낫한 스님은 1999년과 2003년에 한국을 방문했었고, 스님의 저서 〈화〉(명진출판사)와 플럼빌리지 정념 수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님입니다. '명상 여행'은 틱낫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가 스님 뿐만 아니라 참가자 20명 당 1명의 명상지도사가 배치돼 지속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틱낫한 스님
1926년에 베트남에서 출생해서 열여섯 살에 선불교에 입문했습니다. 30대 중반 스님은 미국에서 비교종교학 강의를 하며 반전 평화운동과 베트남 난민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사회봉사청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공로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추천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로 망명해 명상공동체 '스위트 포테이토' '플럼빌리지'를 설립하고 미국에도 '단풍림 승원' '그린 마운틴 수행원'등을 차례로 설립해 명상수행을 세계에 알리고자 힘써왔습니다. 저서로는 〈화〉, 〈기도〉, 〈틱낫한의 평화로움〉 등 10여 종의 책들이 애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앙코르왓 6일
◈ 기 간 : 2007년 3월 6일 - 3월11일(4박6일)
◈ 출발인원 : 60인이상
◈ 동 참 비 : ₩1,190,000

베트남 남부 5일
◈ 기 간 : 2007년 5월 2일 - 5월 6일(4박6일)
◈ 출발인원 : 60인이상
◈ 동 참 비 : ₩950,000

불교성지순례 전문
아제여행사 02)730-4008

홈페이지 : www.ajetour.co.kr 또는 한글 '아제여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명진출판사에서 틱낫한 스님의 책 〈기도〉를 증정합니다.

베트남, 앙코르왓 6일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1일	인 천 호치민 씨엠립	VN939 VN829	10:25 14:00 16:30 17:30	인천 출발 // 호치민 향발 호치민 도착후 경유하여(공항대기) 호치민 출발 // 씨엠립 향발 씨엠립 도착 → 석식후 호텔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석-한식
제2일	씨엠립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순례 앙코르톰 일원의 남문 남쪽 크레앙, 바푸온사원, 바이온사원, 코끼리테라스, 레프왕테라스, 타푸롬사원 관광 점심공양 후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앙코르왓 관광 앙코르왓 일몰감상 (쇼핑센타방문:보석샵,상황버섯샵) 전역공양 후(압살라민속쇼) 및 호텔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 중-현지 석-현지
제3일	씨엠립 호치민	차 량 VN848	전 일 20:25 21:25	아침공양 후 톤레삽 호수 관광 및 수상촌 관광 점심공양 후 바레이호수 및 웨스트 메본사원 관광 → 작은킬링필드 관람 저녁공양 후 공항으로 이동 / 씨엠립 출발 호치민 도착 → 호텔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 중-한식 석-한식
제4일	호치민	차 량	전 일	조식후 전일 공식행사 (틱낫한스님 법문과 걷기명상) 중식 - 불포함 석식후 호텔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 중-현지 석-한식
제5일	호치민 미 토 호치민	차 량 선 편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순례 → 메콩델타 지역인 미토로 이동(2시간 20분 소요) 선편으로 유니콘섬으로 이동-현지인 가이드 동행 → 열대과일시식,열대과수농장, 정통생활모습 → 정글탐사-쩡크선, 중식 (코끼리 생선, 스팀보트, 볶음요리, 튀김, 베트남 쌈등) / 빈트랑 사원 관광 → 호치민으로 귀환(쇼핑센타방문:라텍스 샵) 사이공 선상디너 및 야경관광 // 공항으로 이동 HOTEL:기내박	조-호텔 중-현지 석-선상
제6일	호치민 인 천	VN938	01:10 08:10	호치민 출발 / 인천 향발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후산 성불하십시요	조-기내

베트남 남부 5일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행 사 일 정	식 사
제1일	인 천 호치민	VN939 차 량	10:25 14:00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출발 호치민 탄손누트 국제공항 도착 → 동코이거리, 구시청 등 호치민 시내관광 저녁공양 후 및 호텔 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석-한식
제2일	호치민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전일 공식행사 (틱낫한스님 법문과 걷기명상) 중식 - 불포함 저녁공양 후 호텔 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 중-현지 석-현지
제3일	호치민 구 찌 호치민			아침공양 후 베트남전 땅굴인 구찌로 이동(1시간 30분 소요) 구찌터널 관광 및 생생한 현장체험 → 점심공양 후 호치민 귀환 대통령궁이었던 "통일궁", 베트남 전쟁사를 배울수 있는 "전쟁박물관" 등 시내관광 저녁공양 후 호텔 투숙 HOTEL:1ST CLASS 또는 동급	조-호텔 중-한식 석-한식
제4일	호치민 미 토 호치민	차 량 선 편 차 량	전 일	아침공양 후 메콩델타 지역인 미토로 이동 (2시간20분소요) 선편으로 유니콘섬으로 이동(현지가이드동행) → 열대과일 시식, 열대과수 농장 관광 및 주민 생활상관광 → 터이선레스토랑에서 중식(코끼리생선,수이봉,타이거새우 신선로,라우뭉볶음,쌀밥,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월남쌈) 열대정글탐사-쩡크선탑승, 육지로이동 빈트랑 사원 관광후 호치민 귀환(쇼핑센타방문 : 잡화점, 라텍스샵) 사이공 선상디너 및 야경감상 후 공항으로 이동	조-호텔 중-한식 석-한식
제5일	호치민 인 천	VN938	01:10 08:10	호치민 출발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도착	조-기내

☞ 상기 일정은 항공과 현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법회 모범 사찰을 가다

사찰 재미없어 NO! "신나"

새해 불교계의 제일 화두는 '어린이 포교'다. 지난해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어린이 포교의 미진함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에 전력투구할 뜻을 내비쳤다.그러나 불교계에는 일찌감치 어린이 포교와 법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찰이 있다. 그중 3곳을 선정, 소개한다.



부산 향상선원 자모들로 구성된 지도교사들이 토요학습체험교실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부산 향상선원

자모들로 구성된 지도교사들 법회 호흡 척척
토요학습체험교실 실시 인재교육의 場 펼쳐

부산 향상선원(주지 덕일)의 어린이법회는 '내 아이부터 부처님품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은 절에 다니면서도 아이들은 학원이나 공부를 이유로 절에서 시간 뺏기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상선원의 어린이법회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가 모두 향상선원의 자모들로 구성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20년 남짓 교직 경력을 가진 용선행 보살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회 지원 조직이 별도로 꾸려져 1·3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어린이법회를 책임진다. 자모들이 지도교사를 맡으면서 법회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수료하고 전문성을 갖추는가하면 스스로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을 또 하나의 수행으로 삼고 있다. 특히 매일 열리는 기도와 정진에 참여하다 보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이법회에 대한 교재 연구와 토론, 아이디어 교환 등이 이뤄지고 있어, 어린이법회의 호흡은 척척 맞아 떨어진다.

이뿐 아니다. 1년 전부터 주 5일 수업제 토요학습체험교실을 실시하며 아이들이 찾아오는 사찰 만들기에 주력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을 늘 서원해왔던 덕일 스님의 원력과 용선행 보살의 꿈이 만나 향상선원은 부처님의 지혜로 인성을 키워내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한문교실과 한문을 배우다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중국어교실까지 마련해놓았으며 장구교실을 열어 해운대구 각종 공연에 초대될 만큼 실력도 쌓았다. 또한 생각하는 독서토론, 푸른 바다와 함께 하는 해양스포츠, 천연염색 등 토요일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함께 사찰을 찾게 만들고 있다.

'불교 황무지를 푸른 초원으로' 차곡차곡 정리된 어린이법회 관련 자료집에는 이렇게 커다란 명제가 맨 앞에 붙어 있다. 토, 일요일마다 향상선원 도량을 가득 채우는 100여명의 아이들이 불교 황무지에 뿌려진 파란 새싹이다. (031)747-7870 천미희 기자



서울 금장사 영어로 진행되는 인형극놀이에 빠져있는 보리 방과후교실 어린이들.

서울 금장사

'보리방과후교실' 운영, 소외계층 배려 교육
정부시책 활용 포교와 연계한 모범적 사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금장사(주지 본각)에서 서울지역 사찰로는 처음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원하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다. '보리'로 이름 지어진 이곳 방과 후 교실의 주인공들은 인근 주택가에 사는 50여명의 어린이들. 초등학교를 마치고 하나둘 모여드는 이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계층인 셈이다. 인근지역 어린이들에게 이제 금장사는 놀이터이자 PC방, 도서관, 학원이다. 방과 후 교실의 프로그램인 원어민 영어수업과 미술수업은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금장사의 어린이에 대한 배려는 1999년 포교당 개원부터 시작됐다. 포교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주지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천자문교실'을 열었다. '스님이 한문을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퍼져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본각 스님과 금장사 사부대중은 천자문교실을 어린이포교로 연결시키기 위해 방과 후 교실을 구상하게 됐다.

방과 후 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갖춰야할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공부방으로 활용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규모에 맞는 교사와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장사가 '보리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은 시설비 3000만원을 비롯해 매월 운영비와 교사 임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액수다. 또한 종교계 방과 후 교실은 종교시설의 경우 자격증이 없더라도 대표자가 시설장을 할 수 있는 혜택과 기업으로부터 버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다. (02)395-0042 박봉영 기자



서울 옥천암

영어·야외·찬불법회 '인기'

서울 삼각산 옥천암(주지 정범)은 '어린이 영어법회'로 새싹포교의 신기원을 이뤄내고 있다. 정범 스님은 10년 전부터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어 학습과 법회를 접목시킨 영어법회는 물론 불교레크리에이션 활동, 방학 수련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포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옥천암 어린이 법회의 특징은 1주일 단위로 영어법회, 야외법회, 찬불법회, 레크리에이션 법회 순으로 바꿔서 진행한다는 점이다. 법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만도 60여명이 훌쩍 넘는다. 특히 영어법회는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짜여 진 '맨파워'가 그 강점이다. 원어민 영어 교사(1명)는 물론 어린이 지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도법사(1명)와 지도교사(1명), 대학생 지도교사(2명) 등 총 5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암에서 10년째 영어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세레나씨는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과 공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며 "어린이들이 영어를 '재미난 놀이' '신나는 게임' 등으로 여겨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때문에 옥천암 영어법회는 어린이 영어 동요, 영어 단어 퍼즐, 영어 전래 동화 구연 등 어린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이 접목된 영어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그 주 영어법회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은 옥천암 홈페이지(www.okcheonam.com)에 영상자료로 올려놓고 있어 복습할 수 있고 다음 법회에서 진행될 학습 자료도 홈페이지 상에서 미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야외법회와 찬불법회도 빼놓을 수 없는 옥천암 어린이 법회의 다크호스다. 야외법회는 그야말로 야외에서 하는 법회로 인근 삼각산이나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등산이며 축구, 농구 등을 하며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02)395-4031 노병철 기자



문화 강좌 모범 사찰을 가다

백화점엔 왜 가? 절에 가야지



도심 사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일 뿐 아니라 포교의 장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사진은 인천 용화선원 문화센터의 선단공 강의 현장.

리본아트 은공예 오카리나 요가…. 백화점 문화센터 못지않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사찰 문화강좌는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사찰과 불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사찰과 불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 2001년 문화센터를 개설한 인천 용화선원은 현재 70여개의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어 웬만한 일반 문화센터보다 낫다는 평가다. 특색 있는 문화강좌를 개설한 사찰을 살펴본다.



인천 용화선원 문화센터의 서예 강좌.

"자세를 바르게 하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 마시세요."

1월 3일 찾아간 인천 용화선원 문화센터 선단공 수업 현장. 10여 명의 회원이 선단공 특유의 몸동작과 단전호흡을 익히는데 열중하고 있다. 선단공은 산중에서 전래돼 온 것으로,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심신수련법이다. 문화센터에서 2년째 선단공을 배우고 있는 김민정(43)씨는 "선단공을 배우고 나서 추위도 덜 타게 되고 체력도 한결 좋아진 것을 느낀다"며 "조만간 남편도 함께 배울 예정"이라고 말한다. 지도강사 유인열(51)씨는 "선단공을 오래 수련하면 자세가 바르게 되고 호흡도 깊어진다"고 말한다.

선단공 수업이 끝나자 서예 강좌가 이어진다. 회원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글씨를 연습하거나 경전을 사경하면, 지도강사 이순월씨가 한 명씩 서예 지도를 한다. 아직은 서툰 솜씨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써 내려가는 모습이 수행자 못지않게 진지하다.

이씨는 "서예와 마찬가지로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 대부분이 취미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려져 있다"고 말한다. 서예 강좌 후에는 다도강좌와 비즈공예, 중국어 교실 등이 쉴 새 없이 진행된다.

인천 용화선원 70여 강좌 500명 수강
지역 주민, 이웃종교인들에도 인기

용화선원 문화센터가 2006년 겨울학기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70여개, 수강인원만도 500명에 이른다. 2001년 겨울 처음 문화센터가 문을 연 이후 계절마다 빠지지 않고 이어온 강좌라 용화선원 신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웃종교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여름·겨울학기에는 방학을 맞은 유아·초등생을 위한 도예·암산·동화구연·과학교실 등의 강좌를 보강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인다.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과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특강도 운영하고 있다.

용화선원 문화센터 윤현숙(40) 실장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절에 첫 발을 들여 놓기 어려운 초심자들도 문화센터의 문은 쉽게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를 들으며 익숙해진 사람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불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조금씩 불교를 가깝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톨릭 신자였던 한 회원은 문화센터에 다니며 불교에 호감을 갖고 개종을 하기도 했다.

도심 사찰들의 문화강좌는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라도 사찰을 찾게 되고, 강의 후 법당에 들러 기도나 참선을 하는 등 짬짬이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역시 문화강좌를 들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찰음식 연구가로 유명한 선재 스님이 사찰음식을, 한국명선차인회 이사장 혜성 스님이 다도를, 연화정사 주지 정명 스님이 꽃꽂이 강의를 하는 등 각 분야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지도를 맡아 인기가 높다.

기존의 서예 요가 다도 등의 강좌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강좌를 개설한 사찰들도 있다. 김포 용화사는 서양악기인 오카리나를 배울 수 있는 '오카리나반'을 운영 중이다. 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피리의 일종인 오카리나는 음색이 곱고 아름다워 찬불가나 명상음악 연주에 어울리는 악기다. 수강생들은 부처님오신날이나 송년음악회 등에서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수 있다.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운영하는 문화강좌도 이색적이다. 불교문화를 토대로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단청·불화·서각·한국차 등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용화선원 문화센터 윤현숙 실장은 "규모가 작은 사찰이라면 불자들이 원하는 문화강좌 한두 가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이나 무종교인들도 부담 없이 사찰을 찾아오게 된다"며 "강좌를 통해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포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전문가 강의·수강료 저렴 등 장점
"지속적 운영으로 포교효과 얻어야"

●눈에 띄는 사찰 문화강좌●

지역	사찰명	개설 강좌	연락처
서울	조계사	다도 요가 불화 서예 찬불가 꽃꽂이 단소	(02)732-2183
	불광사	꽃꽂이 동양화 서예	(02)417-2551
	봉은사	다도 태극권 불교영어강좌 참살림행복프로그램 (웰다잉 예비부부교실 좋은아버지교실 등)	(02)3218-4822
	전국비구니회관	요가 천연화장품 민화 다도 불화 꽃꽂이	(02)3411-8103
	법룡사	서양화 도자기 사찰음식 서예	
	능인선원	꽃꽂이 사군자 서예 피아노 일어 영어 퀼트	(02)571-2988
부산	통도사	다도 성보박물관강좌 (불화 단청 서각 한국차 중국차)	(055)382-7182
	삼광사	삼광문화연수 다도 선무도 선요가	(051)808-7111
	홍법사	영어템플스테이 가야금 사찰요리	(051)508-0345
	미타선원	홍승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다도	(051)253-8687
	해인정사	다도 어린이다도 어린이참선	(051)291-1176
대구	관음사	영남불교대학요가 다도 바라춤 컴퓨터 불교기초영어	(053)474-8228
	불광사	서예 합창 다도 수지침	(053)792-1353
	경북불교대학산악	풍물 일본어 축구	
	불광사	수지침 불화 일본어 서예 다도	(053)656-6766
	불광불교대학	수묵화 한문 한지 가요 꽃꽂이	
광주	원각사	합창 요가	(062)223-3168
	덕림사	니르바나문화교실불화 사경 다도	(062)362-2091
울산	정토사	다도 요가 사군자 중국어	(052)258-9944
경기	김포 용화사	오카리나 요가 합창 불화	(031)452-1603
	부천 석왕사	산악 사군자 합창 사진 풍물 다도	(032)663-7771
	수원 용주사	사경 다도 한지공예 외국인한글교실 요가	(031)234-0040
인천	용화선원	선단공 수채화 한국무용 리본아트 프레스플라워 연필초상화 선물포장 퀼트 도예 꽃꽂이 은공예 다도 비즈공예 칼라믹스 중국어 단소 등	(032)875-2796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3-9450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좋은 인연입니다"

불기 2551(2007)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韓國佛教 太古宗

■ 宗 正 崔慧草
宗正禮敬室長 金守萬

■ 僧正院院長 柳南坡
副院長 金慧鏡
副院長 金法藏

■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議長 李寶峰
副議長 林元法

■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文普經
副院長 曺幻宇
副院長 禹慧空

●總務部長 金越海
●教務部長 片白雲
●企劃部長 李法眼
●財務部長 崔默圓
●社會部長 閔法顯

●糾正部長 朴法京
●文化部長 高東佑
●教任部長 李起峰
●電算室長 趙道巖

■ 中央宗會 議長 朴印空
副議長 成圓峰
副議長 鄭大隱

■ 中央司正院長 金月雲
副院長 姜靑峰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02)739-3450 FAX 02)739-3470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이문덕 교무부장 김유정 재무부장 남궁도재
교육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무원 규정부장 조진덕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종의회
종의회의장 장도정
종의회의장 용월산
종의회부의장 박노승

참의원 원장 권무원 금강불교대학 학장 이재창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총본산 구인사
전화 : 043)423-7100~8 / 전송 : 043)420-7399 www.cheontae.org

謹賀新年

즉신성불 현세정화

생활불교 실천불교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印 道欣

統理院長 悔淨 宗議會議長 惠印
教育院長 敬淨 查監院長 惠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남천 죽산
사서실장 이효천

총무원장 이홍파
사서문호명

부원장 황법명

총무부장 김대홍 수교부장 이효천
총무국장 신성법 역경부장 이대광
교무부장 권신일 역경국장 한진각
교무국장 종도중 조직부장 임법경
재무부장 박지열 조직국장 정도명
재무국장 박지성 서부경남종무원장 박송월
사회부장 조이법 경기종무원장 이혜담
사회국장 이도호 종무위원 장법능
감찰부장 이의각 종무위원 박명진
감찰국장 임현선

종회의장 정법륜
부의장 김경철 부의장 강백제
호법원장 김경철
교육원장 김동령
수교부장 이효천 역경부장 이대광
역경국장 한진각
포교원장 김지섭
포교부장 황혜광 조직부장 임법경
포교국장 김법경 조직국장 정도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02)763-0054, 3345 / 팩스 02)763-5851
www.kwanum.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종정 영산일공

총무원장 조성관

종도일동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호
전화 : 02)853-0531~2 / 팩스 : 02)853-0533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 지은정해 혜운법해 지산
원로원장 보산 호법원장 보운
포교원장 종선 문화원장 오현

중앙종회
종회의장 보경
부의장 법우 부의장 보원 사무국장 보성

총무원
총무부장 성우 사회부장 보담 재무부장 보광
교무부장 보우 규정부장 지명 포교부장 법진 호법부장 지담
총무국장 보원 재무국장 보혜 교무국장 원정
사회국장 보정 포교국장 정심 규정국장 보연
무량선무도 도총사 보인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총본산지리산 칠보정사 전화 055)883-7771.7790 / 팩스 055)883-7796

謹賀新年 佛紀 2551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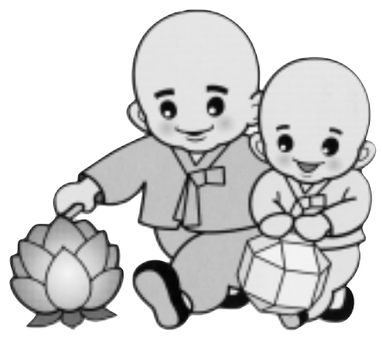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정해년 새해 화합과 상생, 평화의 등 밝히옵니다.

대한불교 종단진흥 총연합회

■대표회장 회 암 (한국대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고 문 송산 대한불교 해 동 종 총 무 원 장
■고 문 무송 대한불교 현 수 종 총 무 원 장
■총 재 운산 한국불교 태 고 종 총 무 원 장
■부총재 혜정 대한불교 일 승 종 총 무 원 장
■부총재 혜안 대한불교 무 량 종 총 무 원 장
■부회장 마정 한국불교 임제선학원 종 무 총 리
■부회장 법장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 무 원 장
■부회장 정림 대한불교 조동정종 총 무 원 장
■이 사 법인 종무위원장 한국불교원각종 총무원장
■이 사 향운 문화위원장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이 사 법천 복지위원장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일초 의전위원장 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이 사 덕산 고시위원장 정 토 진 종 총무원장
■이 사 혜성 사정위원장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이 사 덕진 호법위원장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이 사 대명 재무위원장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이 사 석정 조직위원장 대선불교조계종 종회의장
■이 사 혜명 선관위원장 불 교 법 화 종 총무원장
■이 사 법성 포교위원장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이 사 지고 간사위원장 세계불교법사종 종회의장
■이 사 혜공 외교위원장 대승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이 사 삼일 홍보위원장 한 국 조 계 종 총무원장
■감 사 대광 법규위원장 대한불교현수종 종회의장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본회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빌딩 전화 02)3436-0797 / 팩스 02)2201-1163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광종

종 정 일광 대종사
예경실장 청광

원 로 원 장 자등
중앙종회의장 혜일

총무원장 보혜 호법원장 현파
교육원장 본행 포교원장 자륜

서울북부 제1교구 원장 상근 서울북부 제2교구 원장 정안
서울남부 제1교구 원장 지한 서울남부 제2교구 원장 경조
경 기 교 구 원장 자우 경 남 북 교 구 원장 유운
충 남 북 교 구 원장 혜장 전 남 북 교 구 원장 현입
강 원 교 구 원장 고암 제 주 교 구 원장 정현

임원 : 현재. 만퇴. 유인. 아소. 현덕. 방담. 석정. 상명. 법성. 도무. 선담. 도관. 법능

총무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2동 468-18호 전화 02)2207-7198 팩스 02)433-1666
이메일 ilkwangjong@korea.com

불기2551(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 하시길 발원합니다.

대한불교 불입종

종 정 면 철

원 로 원 장 정관 포 교 원 장 혜경
총 무 원 장 경암 종회부의장 상운
호 법 원 장 현각 서울 · 경기 종무원장 지철
종 회 의 장 월정 부산 · 경남 종무원장 법륜
교 육 원 장 지학

임원 : 만호.인전.성해.묘성.법진.혜광.효운.인수.선률.대원.해월.대덕화. 자비심.연화.석운.성원.진성.화산.원덕.혜련. 관음.무상신.송광. 수진.오륜.성혜옥.견성.송묵.법천.묘훈.봉산.묘진

충북 제천시 청전동 86-4 전화 043)653-4800, 4848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 摩 定 理 事 長 釋解愚
副 總 理 釋 大 虛 副理事長 釋解釋

事務總長 釋 慧 祖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光德寺 方 丈 釋 淨 心
中國佛教 臨濟宗 本山 七塔寺 方 丈 釋 可 祥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 會長 釋 心 茂
臨濟宗 七塔法派 韓國 法子聯誼會 會長 釋 解 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湧
臨濟宗 七塔法派 인디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願

※ 사찰 등록 받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전화 02)496-3951~3 . 팩스 496-3950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 師 寺
(지장전 납골봉안)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 주 지 대 휴

신 도 일 동

財團法人 華嚴僧伽漿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漿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 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 금강빌딩 301호
☎ (02)730-0798~9 / 팩스 722-3205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부종정) 석 정 관
원로원장 석 화 담

호법원장 대 원 원로 벽 봉
의전원장 원 담 원로 법 령
교육원장 구 진 원로 무 송
포교원장 보 광 원로 월 타
연수원장 도 명 원로 도 원
총무원장 도 법 원로 일 우

•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 두 연수부장 성 운
교육부장 무 초 비구니부장 혜 광
사회부장 청 암

• 각 부국장

문화국장 보 성
포교국장 도 명
연수국장 지 우
사서국장 성 덕
비구니국장 영 암
부산포교국장 용 정
충남포교국장 법 정

• 각 시도 종무원장

경기종무원장 지 공
경북종무원장 태 룡
제주종무원장 의 공
경남종무원장 청 강
경북포항종무원장 법 전
충남아산종무원장 수 암
대구시종무원장 성 진
대전광역종무원장 혜 각
충북영동종무원장 선 학

수행국장 보 각
수행특보 덕 우

• 법사단 종무원

경남법사승단 종무원장 도혜 대법사
울산법사승단 종무원장 법광 대법사
중앙포교국장 보 현 중앙총무국장 원 명
서울경기국장 자 운 대구포교국장 혜 원

종무원 국장 혜 명
종무원 국장 수 혜

1. 부산지부 종무소
지국장 혜성 / 부산지부 051)865-7975
2. 충남지부 종무소
지국장 성각 / 충남지부 041)547-1442
3. 강원지부 종무소
지국장 법경 / 강원지부 033)553-6653
4. 경남창녕지부 종무소
지국장 법성 / 창녕지부 055)532-7070

서울 총무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266-7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FAX 02) 391-8583

마산사무실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 (2층) / 전화 055)244-1769
울산사무실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57-1 / 전화 052-251-7748

謹 賀 新 年

"한국불교의 대표언론으로 거듭나는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 정 연화 대종사

원 로 원 장 연 봉
총 무 원 장 송 정
교 육 원 장 정 업
미륵산악회장 보 성
비 구 니 회 장 동 성

■ 미륵종 법인사무국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대표전화 055)345-4741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 원로 원장 : 법종
◆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법종, 백공, 천광, 일봉, 해남, 봉산
◆ 부 종 정 : 혜일 ◆ 율 원 장 : 성민
◆ 총무 원장 : 혜인 ◆ 중앙선원장 : 도일
◆ 부 원 장 : 지운 ◆ 종회 의장 : 혜명
◆ 교육 원장 : 일봉 ◆ 포교 원장 : 정오 ◆ 감찰 원장 : 상산

▣총무 부장 : 동산 총무 국장 : 도성 총 무 과 장 : 조일
▣재무 부장 : 법정 재무 국장 : 대도 ▣교무 부장 : 월곡 교무 국장 : 진묵
▣포교 부장 : 정산 포교 국장 : 묵헌 ▣교육 부장 : 봉선 교육 국장 : 성덕
▣사회 부장 : 자명 사회 국장 : 도홍 ▣문화 부장 : 지우 문화 국장 : 효천
▣비구니부장 : 중비 비구니국장 : 법련,덕산
▣호법 부장 : 보성 호법 국장 : 다정 호법조사계장 : 문희만
▣감찰 부장 : 지오 감찰 국장 : 지호 ▣규정 부장 : 월성 규정 국장 : 성각
▣기획 실장 : 정금옥(불이성) ▣관리본부장 : 허준기(성인)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 종무원장: 상산 서울서부교구 종무원장: 법선 서울동부교구 종무원장: 대도
서울북부교구 종무원장: 정담 인천교구 종무원장: 혜정 부산중부교구 종무원장: 정오
부산동부교구 종무원장: 봉선 경기남부교구 종무원장: 법정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 혜안
대구교구 종무원장: 도오 울산교구 종무원장: 수덕 대전교구 종무원장: 효경
강원교구 종무원장: 광덕 충남교구 종무원장: 무광 충북교구 종무원장: 혜정
경남교구 종무원장: 혜명 경북교구 종무원장: 혜관 전남교구 종무원장: 대성
전북교구 종무원장: 정산 제주교구 종무원장: 덕산 일본동경 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 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 종무원장: 해산

★ **전국신도회** 회장 : 허 정석 고문: 김 윤주 부산신도회장: 박 해식 강원신도회장: 김 현재
★ **학교법인 삼화학원**
⊙삼화불교대학
학 장 : 법종 부학장 : 서봉, 해원
교 수 : 법종, 백공, 서봉, 해원,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정금옥
운영이사 : 무불, 성산, 원명, 본각, 혜관, 도우, 일현, 정현, 법경,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도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도명, 성봉,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법신, 효경, 혜능, 도원, 대각, 지각
⊙삼화불교대학원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조 교 : 조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묵현, 지원, 혜법, 혜묵,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선공, 도각, 동덕, 무량, 혜월,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도성, 진평, 보덕, 진제, 연각, 성묵, 덕송, 지해, 백운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 멘화 , 혜인
부 총 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겸임교수: 신병용, 김병호
학생주임 : 이화목
조 교 : 손정, 주소리

⊙총림
-. 삼화총림 백 화 사
-. 부산총림 흥 국 사
-. 경남총림 백 천 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종단법인 관리처 : 02)511-1080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지호
발행인 : 혜인
이 사 : 정오, 동산, 혜원, 정산, 법련, 혜은, 각원 덕산, 중비, 허준기, 정금옥, 조일

⊙종단 법인
-. 학 교 법 인 : 삼화학원
-. 사 단 법 인 : ①본국검도 협회
②천지무예도 협회
③행복한 사회
-. 의 료 법 인 : 효성
-. 재 단 법 인 : 가평 그린 공원
-. 사회복지법인 : 정향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총무원: TEL: 02)511-2026, 2027, 3445-7375, 7376 FAX : 511-2028
인터넷주소: 삼화불교종단 : www. shbuddhism.or.kr 삼화불교대학 : www. samhwade.com
남경중의약대학: www. njutcm.co.kr E-MAIL: samhwade@hanmail.net

일주문



파라미타 지도자 직무연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센터에서 초 · 중등학교 특수분야 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강원불교련 신년하례법회

강원불교연합회 회장 정념 스님(평창 월정사 주지)은 1월 9일 속초 신흥사 설법전에서 불기 2551년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부처님 성도절 기념초청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지각 스님은 1월 23일 오후 5시 30분 광주 KT 대강당에서 사단법인출범 및 성도절 기념 자광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중앙승가대 불교학과장에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본각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으로부터 불교학과장 겸 신문사 주간 임명장을 받았다.



노숙인 방한복 나누기

보현의집 원장 지거 스님은 1월 4일 영등포 로터리 근처에서 유인촌 前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과 함께 동절기 노숙인 방한복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박물관협회 신년교례회

한국박물관협회 배기동 회장은 1월 15일 오후 4시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2007년 한국박물관협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제1차 정기이사회

대한불교청년회 박효상 회장은 1월 27일 오후 7시 30분 만해교육원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02)738-1920



조계종 원우회 제13대 회장에

조계종 교육원 류창무 연수팀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조합 원우회 제13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인사

태고종 충북종무원 △종무원장=원해 △부원장=광해 △사정원장=운공 △총무국장=상명 △교무국장=강청 △기획국장=도운 · 혜성 △규정국장=혜명 △포교국장=덕공 △문화국장=혜철 △사업국장=지광 △교임국장=월성 스님

이전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오피스텔 1014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8-5586, FAX 738-7576

북한돕기 · 이해하기 지속 전개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제2대 이사장 정여 스님



"북한의 힘들고 어려운 동포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부산 여여선원에서 사단법인 참여불교운동본부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여 스님(사진)은 북한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비의 일일찻집 행사를 열고 북한 동포들을 위한 부산 불심을 모은 정여 스님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몇몇 위정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해결해주기 위한 생필품, 식량 지원은 불교계가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했던 통일신발 보내기를 이어가게 되며 연간 1만컬레의 신발이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 교류도 지속된다. 남북 어린이 그림 교류전은 지역순회 전시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스님은 "얼마전 인도에 갔을 때, 영취산을 오르는 길에 장애인들이 즐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불교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북한 뿐 아니라 인도, 미얀마 등에도 학교를 세워 학용품, 생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불교운동본부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님은 "불자들의 참여가 그 역량을 키우는 열쇠"라며 "사업을 알리는 소책자 발간, 회원배가 운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교사 이전 · 후원확대에 초점"

동방불교대 신임 학장 자월 스님



"종단의 미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훌륭한 인적자원 확보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종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종단 부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동방불교대학이 종립대학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태고종 제 92차 중앙종회에서 동방불교대학 신임 학장으로 인준 받은 부원장 자월 스님(사진)은 "올해부터 동방불교대학은 '선교육 후득도'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1학기중에 교사를 확보해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월 스님은 "교육불사에 뜻을 둔 종단 안팎의 인사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을 동방불교대학 이사로 초빙해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종단의 협조하에 양질의 교육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이 지난해부터 인재양성의 한 방편으로 주력해온 핵심 사업인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성공여부는 동방불교대학의 학사운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책임이 막중한 만큼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혜철 스님 법무부장관 표창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사진)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26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혜철 스님은 그동안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교도소 위문공연과 상담 등으로 수용자 교화에 힘써왔으며, 최근에는 전국 수용자 효편지쓰기행사를 개최해 수용자들의 가족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유응오 주간불교 기자 한국일보신춘문예 당선



주간불교신문 유응오 기자(사진)가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작품 '요요'로 당선됐다.

'요요'는 춤에 모든 것을 건 비보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격렬한 춤속에 숨어있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불교적인 사고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순원 이승우 성석제 소설가와 서영채 문학평론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은 "'요요'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하이틴 아웃사이더들의 이야기를 시원시원하게 뽑아내는 에너제틱한 모습이 돋보였다"며 "4명의 심사위원들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요요'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신인다운 패기와 서사의 에너지를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심사평을 발표했다.

유응오 기자는 "설령 그 끝이 벼랑일지라도 나는 고혹적인 손짓을 하는 문학의 길을 갈 것이다. '요요'처럼 나를 끌어들이고 내밀었던 수많은 인연에게 감사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

2007년을 뛰는 불자 — 우승택 – 삼성증권 호텔신라 지점장

"경제 바로 알기 위해 꾸준히 수행해야죠"



TV '경제야 놀자'로 시청자와 교감
세상 바로 보는 눈 키우기가 '화두'

증권가에도 스타가 있다. 우승택 삼성증권 Fn Honors 호텔신라지점장(49 · 사진)도 재테크 스타 중 한명이다. 요즘은 MBC TV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경제야 놀자' 코너에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 그가 불교에 심취한 불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심상사성(心想事成),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금강경> 해설서를 펴낼 정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불교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가난한게 무슨 죄냐고 하지만, 요즘은 가난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가난은 죄'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우승택 지점장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키울 것을 주문한다.

"제가 펴낸 <금강경> 책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 중에 일이 잘 안풀린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세상이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기는 속세이기 때문에 속세에 맞는 교의해석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지요."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PB(Private Bank)인 우 지점장도 돈과 불교 사이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요즘은 그토록 의지했던 교법과 수행이 자신을 지탱하게 한 것임을 깨닫는다. 지난해 불교인재개발원이 창립될 때 주축 역할을 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인연으로 우 지점장은 불교인재개발원이 수여하는 첫 번째 불교인재상을 수상했다.

불교와 경제에 대해 묻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공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부처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세간해(世間解, 부처님을 이르는 열가지 명칭 가운데 하나)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경제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는 한 일명 '고수'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그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송광사 대구포교원 반야선원 개원



송광사 대구포교원 반야선원(주지 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법회는 경과보고 및 주지스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영조 스님은 "나를 버리고 중생을 위해 불국정토를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워보자"고 당부했다.

티벳고승 쑹추 캔술 큰스님의

「보리도 득론」 법문 및
대승 보살계 수계동참 안내

불법의 대의는 번뇌를 다해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승의 법은 부처가 되고자 발보리심 하여 자비행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보리도 득론은 이러한 대승의 수행법을 일러주는 논전입니다.
6일간 보리도 득론을 설하시고 대승보살계는 마지막 회향일날 티벳 큰스님께서 설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셔서 수행의 기초를 다져서 중생을 이익케 하는 법문에 들어가시기를 발원합니다.

◆ 일 시 : 양력 2007년 1월 13일(토) 오전10시 입제, 1월 14일(일) 오전10시
1월 15일(월) ~ 1월 19일(금) 오후 6시30분 (수계식)

◆ 장 소 : 여수시 노인 복지관(학동)

◆ 동참방법 : 모든 가족들이 보살계를 받으시길 바라며 금번 법회비용은 반야인 보살님이 설판시주를 하였으므로 보살계 법회에 공양올리고 싶은 분은 자유롭게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회 동참자와 수계자는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전계사 및 법사 : 쑹추캔술 린포체

대한불교조계종 마래산 석천사 주지 진옥 합장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16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제16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부산교육원 (우편 · 팩스 접수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원연합회

고 문 목산 눌암 지용
회 장 정각
감 사 문성 본명
상임부회장 덕진
부 회 장 도각
총무부장 종선
교무부장 현담
사회부장 남곡
재무부장 혜안
합창단장 종현

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성수빌딩 6층 616-6
TEL 052)266-3318~9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미륵산미래사

주 지 여 진
신도회장 보리승

■ **법회안내**
신중법회: 매월초하루(전체법회
보현법회: 매월 음력 초여드레(40-60세)
지장법회: 매월 음력 열여드레(전체법회)
관음법회: 매월 음력 스무나흘(20-40세)
청년회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TEL 055)645-5324

태중아기 영가 천도전문도량
약 천 사

주 지 자 운

사부대중 일동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전화 02)3391-8523 011-9002-8523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 법 사

<부설> 대자유치원 · 토월도솔유치원
진해 자은도솔어린이집 · 영축불교대학

주 지 호 암 지 태
신도회일동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정법사** ☎ 055)246-8393, 245-6544
대자유치원 ☎ 055)245-0108, 242-0108
토월도솔유치원: 경남 창원시 창남동 45-1번지
APT단지내 ☎ 055)261-0832
진해자은 도솔 어린이집: 경남 진해시 자은동 911
☎ 055)551-2112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비 로 사

주 지 성 공
사부대중일동

저서-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를 돌아보다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전화 054)638-5033

대한불교원효종
약 천 사

주 지 덕운(운혜)

불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36-3
전화 052)287-6952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유석사

사부대중일동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
108사찰 성지순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산 36번지
전화 054)636-5178

대한불교조계종
해 인 정 사

<부설> 해인불교경전대학

주 지 수 진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063-56
전화 051)291-1176

대한불교조계종
흑응산 연 방 사

주 지 일 봉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전화 054)655-1357

재단법인 선학원
영 주 관 음 사

주 지 도 기
사부대중일동

관음 유치원 운영, 군포교,
재소자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번지
전화 054)633-1138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대한 불교 조계종
정 토 사

주 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밝은세상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환희불교 복지대학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2
☎ (051)294-9300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정한 어린이집 · 노인주간보호센타
부 산 사 하 두 송 자 활 후 견 기 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96-1번지
☎ (051)265-9471 www.dusong.or.kr

대한불교조계종 신창농장
弘 法 寺
Hong bup-sa Temple
國 際 佛 光 會
韓 國 釜 山 協 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Han Na Rae Culure Inc.

주 지 심 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 (051)508-0345 FAX (051)508-6561
Homepage : www.busanbuddhism.com
e-mail : 5080345@hanmail.net

자비실천 수행도량 **미 룡 사**
베트남 호치닌시 관음사

주 지 김 정 각

불교자비원 새샘복지재단
노인대학 바라밀합창단
가정폭력상담소

임원이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23-194번지
전화 051)404-4300, 2100, 403-4848
FAX 403-4860 e-mail:jbwooo@chollian.net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운암(석현엽)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번지
전화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 지 정 만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051)508-4509 FAX 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금 강 정 사

주 지 상 범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50-72번지
전화 051)204-0023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경남 포교사단

단 장 박근호
포교사 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49-12호 (2층)
전화 051)633-3011 FAX 633-3012
www.pogyosadan.org

범어사 금정 불교대학
총동문회

회 장 이용성(자광)
동문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21-1번지 범어사문화관
전화 051)582-7013, 582-7014
FAX 051)582-7014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총 재 대성스님
부 총 재 정여스님 수불스님
사무총장 무관스님
협 회 장 김 석 조
동문회원일동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35-16번지 3층
전화 051)513-4306 FAX 513-4307

공 덕 원

<부설> 지장불교대학

주 지 효 선
신도회 지장회
거사회 청년회 어린이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번지
전화 051)625-2253 FAX 623-3946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원 일 동

부산지역 청년법우 모집

■ http://cafe.daum.net/kybabs
전화 051)861-5241

부산여성불자회

자문위원 이영숙, 박성빈, 백명숙, 이경순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 이정순, 정정자, 김순연
총 무 하영조, 배복자, 손영순
재 무 김종순, 김연자, 하인자
감 사 이소연, 김정숙
교 화 양외금, 김복선, 이복선
운 영 이미춘, 보승장, 우영자
홍 보 이숙희, 박정림, 홍숙희
봉 사 곽규엽, 김경자, 박영옥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번지(부산불교실업인회관 305호)
☎ (051)817-3168,3166 / FAX 818-9916

재단법인
보 현 장 학 회

이 사 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여현 정현 정만 김석조
심금윤월
감 사 상현 오미희
사무국장 이욱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57번지
전화 051)403-7096 FAX 403-9810

무 량 수
불교용품기획·도서출판
보안기획
불교전문기획출판회사

대 표 주영배(보안)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151-3 거상빌딩 4F
전화 051)255-5675
21C불교문화를 열어가는 www.buddha21.co.kr

대한불교조계종
사 나 사

주 지 화 암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04
전화 031)772-5182

불교인쇄기획.편집전문회사
대 한 기 획

서적.불교용품전문점
부 다 가 야

대한기획 전화 051)866-7818
전송 051)864-7075

부다가야 전화 051)865-4383
전송 051)865-4821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1Box(9×4.4) 8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제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후원불자님을 기다립니다
(중원의 최고 명사지)
제왕스님 합장
010-9443-7881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무료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황토 삼백초
신비한 기적의 약초
산삼과 동등한 氣발생
● 노폐물 배출 / 청혈작용
● 면역력 강화 신진대사 탁월
▷건강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041)932-3601

사주 명리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작명 · 적성 · 기타
주1회 (2시간 30분씩)-6개월 완성
(기초에서 격국 용신 임상까지)
스승을 잘 만나야 대가가 될 수 있다
용산구 동자동 갈월빌딩 주차장 앞 한국명리교육원
02)756-4845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丁亥年 신수풀이
甲子에서 癸亥까지
◆무료공개강의
2007. 1월 11일 목요일 오후 4시~
2007. 1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 장소: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1번출구 신한은행에서 남산쪽으로 500m 미주 APT골목으로 50m
달마선원 011-9891-1134

신심이 아주 돈독하고 불자이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603-8450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모 십 니 다
불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사찰 중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모십니다. 약간의 재력과 덕망이 있으신분 우대함
02)733-0108

참신한 불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남산
054)748-35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창원
출 · 퇴근 가능
010-4813-9707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운전가능하신분)
보수 상담 후 결정
▷경남 고성
011-9507-9892

능력있는 스님께서 사찰 소임을 책임감있게 맡아서 하실분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북, 문경
011-259-5989

기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50대만)
▷대구 달서구 상인동 임휴암
053)632-4844
053)641-4844

사찰 운전기사 및 처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 대형면허 소지)
독신처사 불교신자(지방희망)
011-707-5981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 구합니다
▷부산 시내 사찰
011-509-0124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62)672-0009
010-6712-2108

의식 가능하신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스님)
신심 돈독한 처사님 구함
043)256-2655

신심있는 비구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안산지역
011-324-5103

경리보살 구합니다
(신심있는 PC가능자)
▷ 45세 이하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수목장 원하시는 사찰나무판매 합니다
나무는 주목 20년생으로 최상품.
500그루 나무를 반듯하게 다듬어 놓았으며 수목장에는 주목이 최고입니다.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해인사 뒷편)
◎ 가액 : 2,000만원 싸게 공급
연락처:061) 833-0945 / 011-9601-094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 불교의식
사물 · 바라나비춤 · 경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배우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개인지도 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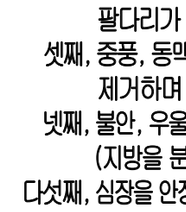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촛불잘밝히는방법 ★ 장사 (사업) 잘하는방법 결혼인연
행복을 찾아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왕따 소외감 비만 스트레스 악몽 변비 알콜중독 부부갈등 난폭한성격 원한관계 우울증 심근경색 코고는사람 불공 생일 이사 개업 묘지이장 방생 입학 시험합격 기타
영가천도 · 삼재 업장소멸
우리말대불정 천수경 능엄신주 지장경 약사여래경
직장인을 위한기도 ★ 가족이함께기도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 · 남을위한기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자녀 탈선 예방
해석 알고 싶은분 능엄신주 액자 있음 테이프 활용
대학입시기도
사법 · 행정 · 취업
물어보세요 011-817-5496 010-7377-9446 019-434-0878 017-520-7546 010-2331-0354 016-787-3977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철야기도 100일 기도 서울 · 부산 대구 · 마산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 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원 ● 사정원장 : 지원
● 총무원장 : 능인 ● 총무부원장 : 허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 · 가 · 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 양양
- 법당 및 요사: 70평
- 부지: 1,800평
- 가액: 2억 8천

- 위치: 강원(동해안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남
- 법당: 24평
- 요사: 170평
- 부지: 500평
- 가액: 1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 평수: 약 1400평
- 전기유, 차진입가능

011-810-8402

작은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광역시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신중탱화, 산신탱화, 산신불
- 법당3~4평, 주방겸 거실2평, 화장실1평
- 전세 300만원, 월 15만원 법당비품일체: 200만원 주방살림가능, 비품일체

010-2309-91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변
- 대지 125평, 법당 30평
- 옥불, 삼존불
- 1층 단독 요사채 30평 사무실 10평, 방3개
- 가액 : 3억 9천, 절충가능 (은행융자6천5백)

017-232-338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15-6333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서울
- 부지: 만평
- 법당: 27평
- 요사: 35평
- 가액: 12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중심가 주위 상가 및 아파트 어시장,구립시장 창동 번화가 도로변
- 대지 28평, 건평 1,2층 56평 현대식 건물, 정면 자연석돌 원기둥, 기와
- 1층 - 주지실, 목욕탕, 화장실, 공양실
- 2층 - 법당, 적불도량완비, 순금태 조성
- 산신각 영가당 법당 외 별도 조성 단청필 새건물 3년 지났음
- 본점은 불자로 인해 사정상 급매
- 가액 : 2억 5천만원, 시설비 : 인연후 조정함

055)243-2315(주지실 직통)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보령 가야산 자락
- 평수: 153평
- 건물: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 가액:5천만원

018-541-18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토당공원옆
- 건물: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64평
- 인테리어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017-304-2260

포교원건물(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내
- 대지: 121평
- 총건평: 150평
- 건물: 3층 건물
- 가액: 3억 3000만원

010-5688-4991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 부지: 약 6000평
- 가액: 10억

"대불사중"

- 위치: 부산
- 대지: 50평
- 법당: 30평
- 요사: 90평
- 가액: 3억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부산근교)
- 경남 양산 120평-2억 3천
- 부산 철마100평-2억 2천
- 경남 김해 2000평-5억 5억
- 부산 120평-3억5천
- 부산 250평-8억
- 부산 280평-10억

011-855-6699 (남문)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범일2동 진시장 자성대 파출소 중간
- 3층건물 3층, 평수: 20평
- 기름보일러 임법당, 상담실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800만원 월 27만원

011-839-3881
010-9720-9901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서생 간절곶부근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 평수: 300평, 건물 2동
- 법당 20평 및 요사채 (방7개, 전통한옥)
- 법당(삼존불)및 산신각 완벽하게 조성. 건강악화로 급 안내

017-578-281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고흥군 동강면
- 대지 591평, 법당 18평
- 요사채 23평 (화장실3, 방3, 큰 거실1)
- 조립식 건물
- 가액 : 1억 5000만원

061)832-2314
010-3635-18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에서 5분거리
- 부지: 550평
- 법당: 20평, 관음전 6평
-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단청필)
- 특징: 심야전기 보일러 , 노송이 어울려져 있는 아름다운 신축 법당(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1억 9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6727-8890

사 찰 안 내
〈사찰부지〉
- 위치:부산동해비닷가
- 부지: 600평
- 남향 8m도접
- 바다전망 확실
- 가액: 4억 5천

〈사찰〉
- 위치: 부산근교
- 천하절경 낙동강변
- 부지: 700평
- 법당: 30평, 요사 60평
- 기타건물 2동
- 가액: 6억

〈사찰〉
- 바다절경 한눈에 보이는 도심 속의 전망 최고의 사찰
- 부지: 1500평
- 목조법당: 30평
- 요사 및 기타건물 3동 대형
- 가액 : 18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없음

019-656-27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가1리
- 사찰부지: 1천평
- 법당 15평, 산신각 3평 연못 위에 용왕각 3평
- 요사채 조립식건물 75평
- 가액: 2억 8천5백

016-536-8774

포교당안내
- 위치: 용산구 동자동(서울역부근)
- 4층건물에 3층, 4층은 요사채
- 평수: 20평
- 삼존불, 아미타관세음, 약사,지장, 시설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600만원(월세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하세요

02)718-0324,0327

암 자 (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임금산 밑 엄부혈 명당터
- 평수: 600평
- 가액: 3천 5백만원

010-3189-3525
055)573-7832

사 찰 안 내
- 위치: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가창골
- 대지: 339평, 전 425평
- 2층건 60평 단층건 45평, 각 1동
- 가액: 3억(융자 8500 포함)

018-514-6009

사 찰 안 내
- 위치: 지리산 산청
- 대지: 500평
- 요사채 2, 법당1
- 가액:1억 5천만원

010-8351-8989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시내근교)
- 법당 10평, 요사채 25평 지장보살
-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1천만원

054)975-6976
016-849-8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지리산
- 대지:312평, 요사채:40평 법당:10평 강의실 10평, 황토방 5평
- 주차시설 가능(30대까지)
- 가액:1억6천만원

055)973-7816
011-854-0343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방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6401-4939
010-5631-8439

70평의 포교원을 운영할 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위치 :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아파트 상가 3층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 : 법당 25평, 삼성각 5평, 친견실 2개, 방 3개 등
- 조건
1. 보증금 걸고 운영할 스님이면 좋겠습니다
2. 인수할 스님은 조건협의 가능합니다.

018-212-38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일산 7층중 5층 114평
- 가액:4억3천만원 (은행융자 2억1천5백포함) 4년전 신축건물을 분양받아 최고의 시설로 하였으며 당시 가격으로 4억8천이 들었으나 사정상 좋은조건으로 급 양도

011-749-4553

포교당안내
- 위치 : 은평구 6호선 새절역 5분거리
- 평수 : 35평(은평뉴타운 인근지역)
- 법당, 방3개, 주방, 욕실 (돌)삼존불, 조각단, 답집, 내부단청 후불신중칠성,지장,탱화, 종 에어컨, 엠프, 도시가스, 전체난방 큰 재래시장옆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최고급 시설)

011-685-8484
02)376-8182

명 당 터 를 보 입 니 다
- 면적 : 13350평(임) 西向
- 위치 : 경남 고성 IC인접(대전-통영 고속도로)
- 형태 : 陰處로 나무 숲이 꼭대기까지 좋음
- 용도 : 관리지역인 만큼 길, 집등 20%까지 사용
- 기대 : 나뭇잎처럼 생긴 만큼 비구니 스님이나 톨큰 여자분께서 잘 활용 했으면 좋겠음
- 가격 : 평당 2만원 이상이나 절충하겠음
- 길은 아직 미비나 290평 사면 해결(坪 10만원 入口) 간벌함으로 지금 재목 선별해서 사용가능

연락처 010-2245-4862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시 대명동 (교대전철역에서 5분거리)
- 건물:60평 한옥집
- 시설:삼존불 완비, 법당1, 방3
- 보증금 2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1-9878-3393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 금정산 온천장부근
- 대지 1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및 공양간 방 9개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

010-4573-2800
051)4573-28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송현역 부근
- 평수 7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1900만원
- 대형주차장 있음.
- 즉시법회 가능

010-8577-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건물 4동 243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55)391-5369
016-772-53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선산
- 법당, 요사채, 산신각, 식당, 대지 전 임야 포함 120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1-540-3313
019-599-00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구미 시내
- 평수 : 약 40평 삼존불, 방2
- 가액 : 1500만원 (500만원 월 40만원)

011-540-3313

조 용 한 귀 (임 법 당)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일제 비품 포함
- 대지:62평(평 300만)법당 32평 방2 小2 입구방 4평(다락4평) 공양간 12평 (포장)방문 후 결정(부산 금정마을)
- 가액 : 2억 1천만원(융 6500만 포함)

011-842-6123 (주지 직)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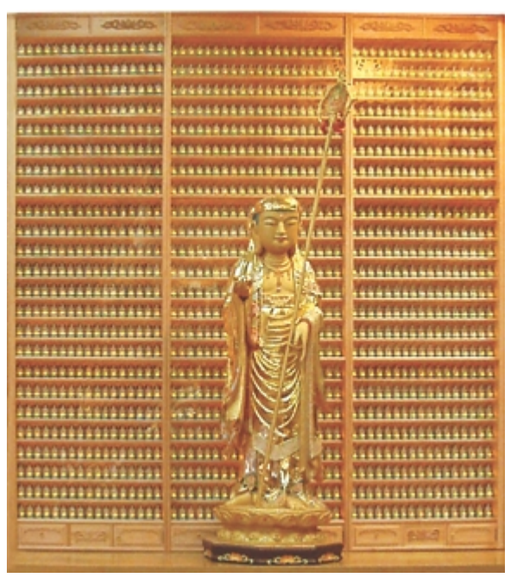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불자 세상보기

맹 란 자

'에세이 문학' 발행인

'완전한 삶'을 서원하며

검푸른 수평선 위로 정해년(丁亥年) 첫날이 밝아온다.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샌 사람에게 여명은 희망이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동해의 태양과 마주하고 있다. 사위가 깨어나고 온 누리가 밝아진다. 세상이 광명(光明)하다. 눈부신 자비광명(慈悲光明)이 내 안쪽으로도 비쳐든다. 척박한 삶과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따스한 손길이 느껴진다. 선채로 합장 배례(拜禮)한다. 얼었던 가슴이 녹는 것처럼 마음에 물기가 담긴다.

'비심(悲心)이 충만하여지이다'를 염원한다. 학생법회 때, 입으로만 외우던 '사무량심(四無量心)'이 살면서 간절하게 삶의 무게에 와 실린다. 그동안 불교와 만나 많은 위로와 법문을 접했지만 역시 요체는 자신의 문제로 귀결된다. 커다란 발원이 없어진 지금, 나는 남은 생을 갈무리하며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를 희망한다.

화택(火宅)에서 빗겨난 심정이라고나 할까. 8·15와 6·25, 4·19를 거쳐 숱한 역사의 부침(浮沈)을 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삼계(三界)는 화택(火宅)이요, 인생은 잠시 잠깐의 꿈 같고 이슬 같다는 무상감을 어쩌지 못한다.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마감해야 하는가? 세상과 결별하며 멋지게 손 흔들며 떠나는 이들의 행적을 찾아본 적이 있다. 역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 사람들의 행보가 쾌활하고 시원했다.

죽는 순간 '야, 참 좋다'라고 말하며 숨진 독일의 철학자 칸트나 '나보다 즐겁고 착한 생애를 지낸 인간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며 생애를 끝낸 소크라테스의 안심입명이 부럽기도 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생을 완전히 살아 버린다는 주의로 일관했던 천재 작가 괴테. 그는 60년 가까운 세월을 <파우스트>에 매달려 있었다.

악마와의 계약으로 미남 청년이 된 파우스트는 인생의 영욕과 애욕의 무의미 등을 체험한 뒤 다시 인생을 긍정하기에 이른다. 그 인생의 의미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힘껏 살아가는 그 고생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두었다. 뒤에 그는 황제의 총사령관으로 요직을 두루 이행한 뒤, 제국의 해변을 봉도 받아 습지를 매립해 낙토(樂土)로 만들려고 온힘을 쏟아 붓는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낙토를 만들면서 해일이 덮쳐와도 모두 힘을 합해 기를 쓰고 구멍을 막는다. 백 살이 된 파우스트는 죽는 순간 이렇게 외친다.

'나는 지금 최고의 순간을 누린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또 헤르만 헤세는 그의 대표작 <유리알 유희>에서 이타행(利他行)을 강조했다. 주인공 크네히트는 카스트리엔국(國)의 명인(名人)이 되나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해내고 희생과 봉사로써 최후를 마친다.

소승의 경지인 '명인'을 넘어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실천한 이타행으로써 인간의 구원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령>이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졌다. 결국 모든 인간은 무죄다. 그러니 용서를 하고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서와 참회와 관용과 사랑으로 인간을 감싸안은 위대한 영혼. 그에게 D. H 로렌스는 '죄를 거쳐 예수로'라고 그의 문학정신을 요약했다.

백 마디의 기도보다 무언(無言)의 실천, 한 가지가 유용하고 더 보람있다.

남을 대할 때 자심(慈心)이, 비심(悲心)이 무량해지기를 빈다. 그리고 남을 대할 때 희심(喜心)이 사심(捨心)이 무량해지기를 서원한다.

새해 첫날 저 눈부신 태양을 온몸으로 맞이한다. 무언가 가슴 골짜기 사이로 축축하게 녹아버리는 해일(海溢). 나는 다시 그 앞에 반배(半拜)를 드리며 서 있다.

불자의 눈

사찰문화강좌 '인기' 영역 더 넓혀야 포교 수확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포교' 보다 절박한 화두는 없다. 다른 종교의 공격적인 전도활동이 불교세를 위축시키기 때문이 아니다. 생활문화의 변화 속에서 종교 자체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 때문도 아니다. 포교가 발등의 불이라는 인식의 저변에는 '원칙과 정책' '유지와 비전' 등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오늘날 불교계에서는 포교의 전형(典型)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소위 '산중 불교'를 탈피하고 '도심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구호는 현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창된 시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교의 도시화가 세속화와 혼돈되고 대사회적 기능이 권력이나 계층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낳았다. 그래서 포교라는 지상과업도 불교계 전체가 공감하는 현실문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 결과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지도 못했고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역시 부족한 게 오늘날의 불교계 모습이다.

하지만 '문화 포교'의 영역은 생활문화의 변화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사음악회라든가 사찰의 지역문화축제의 구심점 역할, 인터넷 시대를 따라잡기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 웰빙 열풍 속에서 각광 받는 사찰 음식과 건강비법 등 불교가 가진 문화자산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찰이 마련한 각종 문화강좌도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강좌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 운동이기도 하다. 인천 용화선원의 경우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70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제2, 제3의 용화선원이 계속 생겨나길 바란다. 이는 사찰의 대 사회적 기능이 바로 문화라는 코드를 통해 포교의 꽃을 피우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사찰과 복지관의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불교교리나 신행 관련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 정보화 아동교육 각종 공예 등으로 영역을 확산하고 있는 것은 포교의 새로운 전형 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불교는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포교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도심포교'의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문화포교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산중의 고찰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포교의 저변 확대와 방법론 모색이라는 수확을 얻고 있다. 또 도시의 사찰과 복지관들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깊숙한 곳에 불교의 정신을 심는데 밝은 비전을 보이고 있다.

문화는 정신의 활동과 생활양식을 축으로 한다. 정신적 충만과 생활의 안락을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포교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시대 불교계의 제일 과제다. 사찰 문턱을 낮추는 일이야말로 포교의 첫걸음이고 낮춰진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바로 문화공간이란 점을 강조하는 바다.

이렇게 들었다 독서계획표

"세상의 온갖 경전과 소(疏) 논(論)을 다 통달하면, 이 때문에 깨달을 때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다시는 미혹하지 않게 된다. 이런 지혜를 무애지(無碍智)라 한다." <대집경>

미디어캠퍼스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1명은 한 해 동안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았고, 한 달에 한 권 이상을 읽는다는 비율도 35%를 넘지 않았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독서실태도 나을 것이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1993년부터 10년간 조사한 '국민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23.7%가 한해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절대적인 독서 시간도 부족하지만, 독서의 질은 더욱 문제다. 대학별 도서대출 순위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작품은 가볍게 읽기 좋은 일본 소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해리포터> 시리즈 등의 외국 소설의 인기는 식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대하소설은 대출 목록에서 이름을 찾기 힘들었다.

책 판매 현황을 살펴봐도, 몇몇 '팔리는 책'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용서나 일부 화제의 책은 수백만 권이 팔리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는 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 신간 판매는 1000권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잘 팔리는 책'만을 양산해 내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독자층을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불자들만이라도 올 한해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 여수령(취재부 기자)

고침 본지 지난호(609호) 불자세상보기 필자 월호 스님은 '쌍계사 강원 강주'가 아닌 쌍계사 강원 강사'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새해 이것만은... '인재양성'이 불교의 희망, 더 많은 투자를



살아있다는 것은 흔들림의 연속인 것 같다.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튼튼한 뿌리를 얻는다.

지난 한해도 그러했다.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 의연함을 배우는 것이 삶이라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다. 새로운 것은 늘 설레임과 함께 막연한 불안도 동반한다.

지난한해 불교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어떤 때는 간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떠나갔고 그리고 서서히 잊혀졌다. 그 자리는 다시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졌다.

이웃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왜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고 간절히 붙잡지도 않는 것일까.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런 불교계의 현실이 나는 참 가슴이 아프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으로 아는 것일까. 진정으로 실천하고 사는 것일까.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모두 부처가 될 존엄한 존재들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와 도반이 얼마나 빛나는 보물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엷어진다.

올 한해 불교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큰 투자이며 불교의 희망인 것을 절절히 깨닫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둘째, 이제 사찰도 불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불자들에게 진정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를 분석하여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사찰이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웃과 사회와 함께 하는 생활불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불교를 바르게 믿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불교의 희망은 사람이다. 사람만이 희망인 것이다!

이화(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범주 스님의 '새해인사'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7년 1월 2일~ 2007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공 제5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12월3일 시행된 제5회 연합회 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실시하고 필기 및 면접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함

동산불교대학	김병호 김상우 김영희 김원복 김재창 김진만 노길자 문종현 박춘덕 박희동 송정순 송종근 송진철 신생호 신인숙 오일록 용성자 이명하 이용일 이향숙 장숙기 진혜경 한진용 (23명)
경인불교대학	고용배 김경하 김옥희 김용호 김정민 김태수 박명숙 박시환 윤성숙 이을형 한송영 홍상조 (12명)
부산불교전법대학	김삼선 김석갑 김성열 노석규 송옥금 양봉기 오병록 장용석 정숙희 조용욱 진춘현 천재호 (12명)
청주불교대학	김상문 김성식 김영묵 윤병설 임상숙 최옥규 (6명)
보현불교대학	권순옥 김성희 박성덕 정진원 한화자 (5명)
새세계불교대학	이세영 황정혁 (2명)
금강불교대학	박영애 (1명) (이상 61명)

■ 등록기일 : 2007년 2월 7일 까지 ■ 품 수 식 : 2007년 3월 24일 ~ 25일

■ 장 소 : 만해마을(강원도 인제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 및 품수교육비 : 6만원 (소속학교 일괄접수바람)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문의 02)734-9595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
vivaldi
한라비발디
한라비발디에서 오늘도
그녀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녀는 오늘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감도는 그녀의 공간 –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곳 –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 한라비발디
HALLA
한라건설
www.hallaapt.co.kr



저팔계를 닮으면 행복해진다

욕망을 서원으로

돼지는 묘한 짐승이다. "너는 돼지같다"고 하면 누구나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돼지꿈을 꾸라 하면 좋아한다. 또 고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한다. 죽으면서도 웃는 표정을 지은 돼지 머리 앞에~ . 자기가 그렇다는 건 인정할 수 없지만 묘한 주술적 힘을 지니고 있어 재수를 불러들이는 돼지….

돼지 가운데 가장 스타(?)로 부상한 것은 저팔계일 것이다. <서유기>에 등장하여 힘은 강하지만 먹을 것과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고질병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친근한 느낌과 웃음을 주는 존재가 바로 저팔계이다.

바로 이 저팔계라는 상징 속에 돼지가 가진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유기>는 단순한 공상소설이 아니라 현장 삼장의 인도 구법여행이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 수많은 상징과 은유를 섞어서 불법 수행과정의 시작과 끝을 드러낸 보기 드문 작품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탐욕을 상징하는 돼지로 형상화되고, 그러면서도 불경을 구하는 고난의 역정에 함께하여 결국 그 큰 목적을 이루는 돼지 저팔계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디 저팔계는 하늘세계에서 벼슬을 하던 이였고, 돼지 모습은 아니었다. 아름다운 은하수를 관리하는 천상의 관리였다. 죄를 짓고 하계로 추방되면서 재수 없이 돼지탈을 뒤집어 쓴 것일 뿐이다. 죄를 짓고 추방되었다는 사실이 저팔계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본디는 귀한 존재였다는, 그러나 지금은 보기싫은 탈을 쓰고 있다는 이중적 의미가 이미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저팔계는 팔계(八戒)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삼장법사의 수행원이 되면서 받은 본디 법명은 오능(悟能)이다. 손오공(孫悟空), 사오정(沙悟淨)과 더불어 오(悟)자 돌림이다. 손오공이 공(空)의 진리를 깨달아 지혜를 성취하고, 사오정이 맑음(淨)을 깨달아 정(定)을 성취한다면 저팔계는 자신이 지닌 능력을 깨달아 힘을 성취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계율을 지켜 이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팔계라는 이름이 따로 붙었을 따름이다. 깨닫지 못하면 탐진치(貪瞋癡)의 삼독(三毒)이지만 깨달음을 통해 계정혜(戒定慧)의 삼학(三學)을 이룬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이 속에 절묘하게 녹아 있다.

돼지 모습을 한 저오능과 저팔계라는 두 이름을 지닌 존재, 이 속에 돼지로 형상화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 보통 탐욕은 부정적인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말해진다. 서유기 속에서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고를 치는 저팔계의 모습 속에 그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하기에 탐욕은 경계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탐욕을 완전히 끊는다면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라.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몰고 나가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욕망이 아닐까? 그 욕망을 끊고 나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남들은 욕망의 추구를 통해 많은 것을 성취하여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하면서 손가락 빨고 있을 것인가? 아니 손가락도 빨면 안 되겠지. 그것도 일종의 욕구불만을 표현하는 짓이니까!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욕망에 초연하면서 혼자 고상한 경지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니 혼자만의 이상 추구라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른다. 문제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쉽게 말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욕망에 초연하다 보니 현실사회에서는 일종의 낙오자 그룹으로 전락한다면? 좀 곤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의 불자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불자들이라고 해서 낙오자 그룹은 아니다. 그들은 현실문제에 대하여는 열심히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여 크게 성공한 이들도 많다. 그러한 불자들도 절이나 법회에 가서는 열심히 탐욕을 끊은 가르침을 배우고, 또 탐욕을 끊는 수행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로 돌아가서는 또 열심히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산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할 수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잘못 산만큼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업을 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삶인가?

그 곤란함을 해소하는 절묘한 상징이 바로 저팔계다. 그 부정적인 모습을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지닌 힘을 깨닫고,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는 계율을 통해 그 힘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이끌어 가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힘에,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힘이 따로 있을까? 악을 지향하려는 힘, 선을 지향하려는 힘. 오욕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의 힘, 불도를 성취하려는 서원의 힘. 그런 것이 각각 따로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방해가 되는 한쪽의 힘은 완전히 끊어 없애야 옳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굳이 '둘이 아닌[不二] 법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저팔계가 그렇게 사고를 치면서도 끝내 삼장법사를 수행하여 불경을 구해오는 일을 온전히 마치고, 결국은 부처를 이룬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본디 천상의 관리였듯이 원래 나쁜 존재가 아니요, 또 없어서도 안 될 존재다. 문제야 많이 일으키지만 그 욕망이라는 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추진해 나갈 어떤 다른 힘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저팔계가 수없이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결국 구법의 여행을 온전히 마치는 것은, 욕망이라는 길들여지지 않은 힘을 돌이켜 서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욕망 추구 · 탐욕 끊는 수행 두가지를 해소하는 절묘한 '상징'

'팔계' 이름엔 깨달음 통해 삼학을 이룬다는 가르침 담겨 있어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욕망이라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또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길들여져야 하고 서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연기의 진리에 눈을 뜨고 부처님 자비광명의 가피를 입게 되면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움직이던 욕망이 자연히 나와 남을 함께 생각하는 서원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다.

저팔계가 부처를 이루는 과정처럼 수많은 방황은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의 가피 아래 차츰 물러서지 않는 서원의 힘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탐욕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던 힘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참된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저팔계의 법명이 무엇인가? 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저팔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욕망이 참된 능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올해는 돼지해, 그것도 황금돼지의 해라 한다. 황금돼지라는 말은 오행사상이나 역학에 비추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지만, 그 말을 빌미로 우리 불자들은 진정한 황금돼지의 해를 이루어 보면 어떨까?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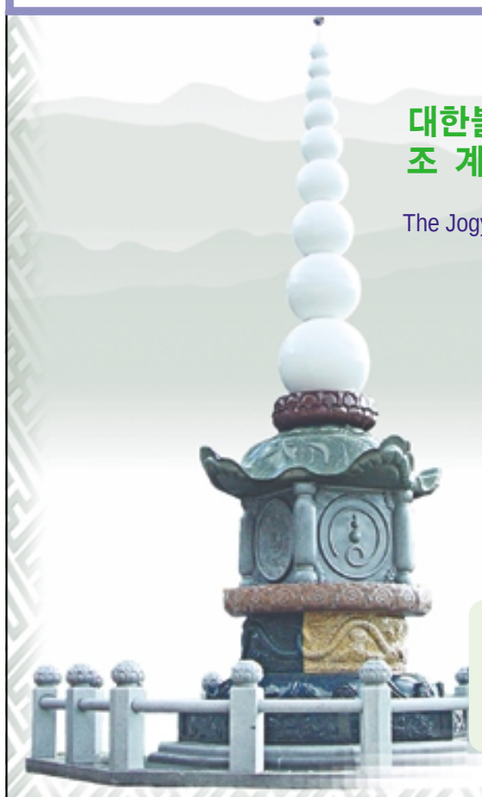


김유신 장군 묘에서 나온 납석제 돼지 모양의 십이지신상(국립경주박물관 소장).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0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본 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스 : 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á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BRASIL(브라질)
● Sao Paulo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01127-000-Brasil
TEL : (55-11) 3337-5291

틱낫한 스님과 '명상여행'을

마가 스님 3월 · 5월 베트남에서 禪프로그램 진행

2003년 중앙대에서 대학 정규 학과과정으로는 처음으로 채택된 명상 강의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 지난해 마곡사에서 열린 열 차례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서는 뼛속 깊이 자신을 느끼게 하는 강의로 스님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됐다.



프랑스 '플럼 빌리지'에서 틱낫한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마가 스님(오른쪽).

그런 마가 스님이 이번에는 '명상 여행'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불자들과 만나게 된다.

최근 틱낫한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수행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방문한 마가 스님은 "올 3~5월 베트남에서 한국 불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틱낫한 스님의 제안을 받고 숙고한 끝에 '명상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월6~11일, 5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씨엠립과 호치민 등지에서 4박6일간 진행된다. 6일 일정 가운데 하루는 틱낫한 스님을 친견해 법문을 듣고 함께 걷기명상을 하는 일정을 갖게 된다.

명상은 틱낫한 스님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귀국할 때까지 호텔에서도, 이동 중에도 계속된다. 프로그램 참여자 20명당 1명의 명상지도사가 따라붙어 계속해 명상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순례 형식이 아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인 셈이다. 이밖에도 씨엠립 바이욘 사원, 타푸롬 사원 등을 참배하게 되며, 몇몇 관광지도 들르게 된다.

마가 스님은 "자비명상은 자기를 돌아보고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며,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을 바로 아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0-4008(아제여행사)

한명우 기자

근본불교에서 간화선까지 "공부하세요"

유마선원, 16일부터 도심서 제1기 수행교실 열어

다양한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을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서울 유마선원 수행교육원(원장 이제열)은 1월 16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제1기 수행 교실'을 연다.

첫째 달은 붓다락키타 스님(보리수선원장)이 '근본불교의 수행체계와 방법'을 주제로, 둘째 달에는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이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법'으로, 마지막 셋째 달에는 이제열 법사가 '대승불교의 수행체계와 공관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는 3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이론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마선원 수행교육원은 이론 강좌가 끝난 뒤 실참 강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열 법사는 "수행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도 다양한 수행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행 전반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7-8227

한명우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현장 천안 호두마을 '특별집중' 프로그램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행복해요

"오늘 두시간동안 법문 들으니까 다리가 저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예, 아픕니다."

"아프다, 아프지 않다'로 구별하지 마세요. 아픈 다리를 주의깊게 관찰하다보면 아픈 다리와 내 몸이 별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낌과 동시에 다리의 아픔은 사라집니다."

1월 3일 오후 7시 충남 천안시 광덕면에 자리한 '호두마을(041-567-2841)' 대법당. 2000년에 세워진 이곳은 국내에서 위빠사나를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수행처로 손꼽힌다.

위빠사나는 2600여년 전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은 수행법이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알아차려 '무상' '고' '무아'의 지혜를 스스로 증득해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이다. 국내에는 1990년대 초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날은 미얀마의 큰 스님인 우 또다나 사야도(미얀마 마하시센터)를 초청해 15일간 진행되는 '특별집중' 수행프로그램으로 30여 참가자들이 15일간 일정으로 수련하고 있다.

입제식에서 초청 법사인 우 또다나 스님은 비구니스님인 범라 스님의 통역을 통해 위빠사나의 개념과 수행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위빠사나는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무런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관찰과 알아차림을 통해 일체 대상이 한 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변하고 생멸하는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이순간 있는 것을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림 하면 허망한 마음이 만든 모든 집착과 고통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게 됩니다."



국내 대표적인 위빠사나 수행처인 천안 호두마을은 한달에 3~4회씩 집중 수련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진은 1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열리는 미얀마 우 또다나 사야도 초청 특별집중수련회 모습.

미얀마 우 또다나 사야도 초청
15일간 수련…행선 · 오후불식도

처음듣는 설명에 이해가 안간 일부 수련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스님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눈앞에 귤이 있다고 합시다. 귤을 먹으면 처음에는 시큼하거나 달다가 계속 씹으면 밋밋해지고 나중엔 아무맛도 없어집니다. 맛을 관찰하면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 변화를 보는 마음도 실체가 없지요. 주객을 떠나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진짜 '나'입니다. 맛있다고만 느끼면 귤을 더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뿐이고 맛없다고만 느끼면 먹기 싫다는 체념이 생길 뿐입니다."

수련생들은 오전 4시에 일어나 오후 9시까지, 예불과 행선(行禪 · 걸으면서 참선하는 것) 및 좌선, 인터뷰 등을 한다. 식사는 오전 6시와 오전 11시 두 번. 오후에는 간단한 음료 정도만 입에 댈 뿐 불식(不食)을 한다. 오후 수행 중 자유롭게 법사와 만나 수행을 점검한다.

위빠사나 수행에선 호흡에 대한 관찰이 기본이다.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숨의 흐름, 배가 나오고 들어갈 때의 느낌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우선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를 내민다. 숨을 '토' 소리가 나도록 급격하게 내뱉으면서 배를 안으로 들이민다. 이를 20여 차례 반복하고 잠시 쉰 뒤 다시 한다. 이 과정에서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배의 움직임을 자세히 느낀다. 이 호흡법은 잡념과 졸음을 막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통 수련생들은 1시간 동안 반복한다. 호흡은 24시간 하는 것이므로 이를 관찰하면 차츰 몸, 마음, 무의식으로 관찰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초심자를 지도하고 있는 양홍규 법사(49)는 위빠사나 수행을 열심히 하면 집착과 번뇌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우리 인간들은 화를 자주내게 됩니다. 그런 화내는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화를 내는 나와 화를 내게 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나'는 이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다보면 '진짜 나'는 화내기 전에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화를 내는 원인과 그 뒤에 생겨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화내기 힘들어지게 되죠."

수행에 참가한 김주영씨(37 · 서울 성동구 마장동)는 "위빠사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잠드는 것 모두를 수행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일상생활속에서도 수행력을 높여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 짐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위빠사나의 장점은 기본수행법만 익히면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지도자가 인터뷰(면담)을 통해 언제든지 수련생의 자세를 고쳐주고 조언해 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수행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몫도 중요하다.

호두마을은 수행 경험이 많은 국내외 위빠사나 지도자들을 초빙해 한달에 서너 차례 수련회를 갖는다.

천안 호두마을=김주일 기자

1기관 1불자회 갖기 · 사이버활동 활성화

공불련, 새해사업 · 조직강화 연합법회 등 초점

한국불교 재가신행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윤갑, 이하 공불련). 올해로 일곱 살이 된 공불련이 내실 다지기를 통해 2007년을 한발 더 도약하는 해로 정했다.

공불련 올해 사업 계획의 핵심은 조직 확대 및 강화. 현재 공불련의 단위 조직은 각급 경찰불자회를 포함해 모두 213개. 그러나 전남북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불련 단위불자회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공불련은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1기관 1불자회 갖기 운동을 전개해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각 단위기관 불자회 별로 법회활동을 강화해 더 나은 포교와 수행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상의 각 불자회 카페를 공불련 홈페이지에 연동시켜 사이버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조직 간의 유대관계를 넓힌다는 점도 올해 계획의 특징이다.

공불련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후원회 조직은 이미 추진 중이며,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 모금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다양한 사업을 위해 재정 확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각 구청 연합법회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있지만 구청 불자회간 연결고리가 없어, 연합법회가 이뤄질 경우 신행과 포교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공불련은 기대하고 있다.

공불련은 1월 19일 오후 7시 서울 봉원사에서 2007년도 신년 하례법회를 열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謹賀新年 佛紀 2551年
이천만 불자 여러분 새해 복(福) 많이 받으세요.
저희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는 2007년 정해년에도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구장애인단체연합회 이탁송 회장 합장


■ 도봉구장애인단체연합회 활동사항
◇ 도봉구지체장애어르신 무료점심 급식
◇ 컴퓨터 무료 강좌 '유레카 스쿨'운영
◇ 도봉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 장애인의 날(4월 20일) 체육행사
◇ 야학지도교실 '형설지공 야학' 운영
불자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자비광명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 834701-04-026149 이탁송(장애인연합회일동)
도봉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국장 김동철
서울 도봉구 쌍문2동 653(삼환프라자 605호)
문의전화 02)907-0916-8 팩스 907-0942 019-693-1784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3>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하여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한다.

첫째, 연꽃이 진흙탕에 있더라도 언제나 맑고 깨끗한 모습이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삿된 소견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다[처염상정(處染常淨)]. 둘째, 그 씨앗이 진흙탕에 떨어져도 썩지 않고 있다가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꽃을 피우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에 한번 스치기만 해도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성불하는 인연이 된다는 것이다[종자불실(種子不失)]. 셋째, 연꽃이 피면 그 안에 연실(蓮實)이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는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다[인과동시(因果同時)]. <선가귀감> 53장에서는 말한다.

聽經 有經耳之緣 隨喜之福. 幻軀有盡 實行不亡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법을 알게 되는 인연과 그 법을 따라 기뻐하는 복덕이 있다. 허깨비 같은 이 몸이야 다할 날이 있지만 진실한 수행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에 한번 스치게 되는 인연이라는 '경이지연(經耳之緣)'의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으면 그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힘이 있어 뒷날 중생의 온갖 고통을 여의게 하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요긴한 길이요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자비로운 반야용선(般若龍船)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 자체가 중생에게는 큰 복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대반열반경>에서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에 스치듯 한번 듣기만 해도, 이 인연으로 이 중생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나쁜 업보까지 모두 다 없앨 수 있다[若有衆生一經耳者 悉能滅除一切諸惡無間罪業]"라고 한 것이다.

'허깨비 같은 이 몸'이라고 번역한 '환구(幻軀)'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중생들의 몸은 알고 보면 무명(無明)의 업(業)으로 이루어진 '허깨비와 같은 번뇌덩어리'이다. 이는 허망한 중생의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인연이 흩어지면 우리 몸은 허공 속의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有盡].

중생의 몸에서 근육이나 뼈, 골수 등으로 이루어진 것은 명줄이 끊어져 중생의 인연이 흩어지면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침이나 콧물, 눈물, 똥오줌과 같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축축한 기운들로 이루어진 것은 물로 돌아갈 것이다. 따스했던 몸의 열기는 불로 돌아가고, 몸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운들은 허공 속의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몸을 만들었던 인연들이 흩어져 땅,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 몸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땅, 물, 불, 바람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진 이 몸은 허망한 것으로 허깨비와 같으니 아끼고 애지중지하여 안타까워 할 것이 아니다. 멀고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 때문에 중생들의 생로병사가 생겨났을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고 무명 이전의 참마음을 깨닫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수행이 된다. 진실한 수행으로 나타난 참마음 이것이 영원한 부처님의 세상이니 그 세상은 없어지지 않는다[實行不亡]. <대반야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부처님 가르침 통해 참마음 알아야 진실한 수행

불법인연은 가장 큰 인연이며 금강지혜 얻는 것

"만약 사람들이 반야바라밀다심경이나 법문 또는 그 이름을 얻어 듣고 귀에 한 번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서 공양하며 원력으로 온갖 선근을 심어 왔던 이들이므로 많은 선지식들이 다 거두어 보살펴 줄 것인데, 하물며 경전을 만들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치대로 사유(思惟)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거나 자신의 역량에 따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若善男子善女人等 得聞般若波羅蜜多心經典法門名字一經耳者 是善男子善女人等 已於過去無量如來應正等覺 親近供養 發弘誓願 種諸善根 多善知識之所攝受 況能書寫受持讀誦 如理思惟爲他演說 或能隨力如說修行]."

서산 스님은 말한다.

此明智學 如食金剛 勝施七寶. 壽師云 聞而不信 尙結佛種之因 學而不成 猶蓋人天之福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금강지혜'라는 것을 밝힌다. 금강석을 삼킨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칠보를 보시하는 복덕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스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믿지 않더라도 이미 듣는 자체로 부처의 씨앗이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공부를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뒷날 이 인연으로 부처가 되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나 천상의 복덕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한 것이다.

<화엄경> 여래출현품에서 이르기를 "아주 작더라도 금강석은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금강석은 육신의 더러운 오물들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작은 씨앗을 심는 것도 이러하여 이 씨앗은 온갖 번뇌를 뚫고 무위열반에 이르게 한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아주 작더라도 온갖 번뇌와 더불어 같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다[譬如丈夫 食少金剛 終竟不消 要穿其身 出在於外 何以故 金剛不與肉身雜穢 而同止故 於如來所 種少善根 亦復如是 要穿一切有爲諸行 煩惱身過 到於無爲究竟智處 何以故 此少善根 不與有爲諸行煩惱而共住故]"라고 하였다.

또한 <금강경>에서도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풀이하여 남에게 일러준 공덕은 값비싼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담아 남에게 보시한 복덕보다도 참으로 커서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참된 선지식이다. 경전과 선어록을 통하여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스승으로 섬기고 가까이서 정성껏 모셔야 한다.

설사 지금 이 가르침을 깨치지 못하고 배움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뒷날 이것이 부처의 씨앗이 된다. 이 인연으로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세세생생 사람의 몸을 받게 되고,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를 듣고도 천 가지를 깨우칠 수 있는 총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 가운데 가장 크고 소중한 인연은 불법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통알(通謁)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분주할 때입니다. 특히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리려다보면 몸과 마음이 더욱 바빠집니다. 정초 설빔을 갖춰 입고 친척이나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절을 올리는 세배는 빼놓을 수 없는 새해 풍습입니다.

이런 풍습은 사찰에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예불을 마친 후 대중이 법당에 모여 제불보살과 신중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이를 통알(通謁)이라 부릅니다. 통알이란 삼보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통알은 불공의례인 축상작법(祝上作法) 후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삼보, 신중, 산신, 스승, 부모, 일체 고혼에 삼배하고, 도반들과 대중들에게 삼배를 올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른 스님께 올리는 인사를 통알과 구별해 세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통알이 끝난 후 대중들은 먼저 산중 가장 어른 되는 스님에게 절을 올리고, 밑으로 내려가며 절을 합니다. 통알과 새해인사가 끝나면 사찰의 조사전이나 영각 등을 찾아 개산조 및 중흥조, 역대 조사 스님께 다례를 올립니다. 이같은 새해 풍습들은 부처님 당시 또는 인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중국 민가 풍습의 영향이라 합니다.

사찰의 많은 풍습이 사라졌지만, 통알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양력 기준으로 새해 봉행되는 총무원의 시무식이나, 5일 열린 종정스님 신년 하례 등도 통알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박익순 기자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새해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강 좌 일
- 2007년 1월 20일 (토) ~ 1월 21일(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갑사
주지 장곡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 8982
팩스 041)857-975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조사
주지 자제
신도회 일동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593번지
전화 02)924-5362
팩스 02)924-5363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 봉안당이 있습니다"
무등산 문빈정사
주지 석장
광주 동구 운림동 96
전 화 062)223-0109
휴대폰 017-653-0925

대한불교천태종
춘천 삼운사
주지 월도
강원 춘천시 후평1동 590-18
전화 033)241-1330

대한불교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지 무원
신도일동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67-1번지
전화 033)567-2533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 1번지
전화 02)379-2996

대한불교조계종
현 덕 사
주지 현종
사부대중일동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569
전화 033)661-5878

화 개 사
사부대중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489-1번지
전화 032)932-4140

용 연 사
주지 설암
사부대중일동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교막리 821번지
전화 032)932-4140

수원포교당
주 지 성관
부주지 성보
총 무 정명
기 획 지우
교 무 정원
법 사 임곡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 선재원 청주 청수사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 수원서호노인복지회관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번지
전화 031)245-9670~2
www.suwondharama.or.kr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 각 사
주 지 도제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51번지
전화 062)223-3168
불교대학(매주 월)/초사흘(음,3일)/포살법회(음,15일)/지장재일(음,18일)/관음재일(음,24일)/어린이(매주 토)/중고등부(매주 일)/청년회(매주 금)/선우회(매주 월)
불일서점 052)293-5550
www.wongaksa.org

정해년 새해도 불자님들 가정에 만복과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서원합니다.
원각사 불일청년회 회원모집
불교에 관심있는 20세이상 청년회원을 연중 모집합니다.
장 소 : 금남로 원각사 대웅전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연락처 : 016-294-5866
016-684-0010
절에 처음오신분들만 따로 기초교리를 가르칩니다.
부담없이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원건설 주식회사
택지 개발 사업
주택 건설 사업
토목 공사업
회 장 조동환
본사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0-9
전화 052)260-9950(代)
팩스 052)260-9552

동울산 사암 연합회
원 로 원각사 월타
고 문 법륜사 눌암
회 장 대원사 동파
사무총장 대각사 초우원덕
관음사 현수
관음사 혜원
용암사 법광
자광사 향공
정각사 해승
동축사 문성
등용사 본명
반야사 노암
사부대중일동
울산 광역시 동구 대송동 대원사내
전화 052)233-7176, 281-0134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 장 황경환
부회장 조종래 박권식
오세길 오순돌
이재필 김영득
노동식 윤건우
박복선 서복선
고석열 손경숙
사무총장 김영득
사무국장 추인교
이사 회원 일동
울산 광역시 남구 신정2동 616-6 성수빌딩6층
전화 052)271-1310
팩스 052)258-1370

‘금강경’ 읽으면 피부가 맑아진다?


前 영산대 총장 정천구 박사

마음안정→ 정신 · 육체의 변화→ 건강한 사람

‘탐심을 일으키면 어두운 세포가, 진심을 일으키면 독성이 있는 세포가, 그리고 치심을 일으키면 탁한 세포가 만들어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 진, 치를 닦고 몸뚱이 집착하는 마음을 바치면 청정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마음이 청정하면 여러 마음이 청정하고 여러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해 진다.’

과연 무엇이 인간의 고통을 없애 줄 것인가. 창공을 가르는 새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피안의 세계를 그려본다. 하지만 늘 추락의 아픔을 겪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삶에 대한 근본문제에 대해 성찰해보고, 진리를 찾아보고 싶다면 <금강경>에 관심을 가져보자.

前 영산대 총장인 정천구 교수가 이론 중심이 아닌 ‘공부’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 수행인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금강경 공부하기>는 <금강경>의 핵심을 찾아주는 좋은 안내자다.

경의 명칭과 유래, 금강경의 요체, 수행의 방법과 단계, 경의 수지 독송, 상을 떠난 수행 공덕, 무아로 하나 되는 공부, 복과 혜를 닦음, 법신과 하나 되는 공부, 부처님 경지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금강경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들을 반영했다.


금강경 공부하기
정천구 지음
혜명 | 1만2000원

저자는 말한다 “금강경을 읽어 바치는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처음엔 피부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더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정신적 변화와 함께 육제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정신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저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대승불교의 덕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부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도라는 세계에 도달한 초월자의 세계를 그려보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하다. 비록 현실이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복락과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이 시대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종교와 종파는 다르더라도 진리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참된 삶의 길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책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일본불교 제대로 알아야 하는 까닭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 균형있게 비평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과연 ‘일본불교’는 어떨까?

일본불교의 사원은 6세기 중엽 백제의 성왕에 의해 전해진 ‘백제불교’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일본학자들이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복사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불교의 빛과 그림자>의 저자인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는 ‘일본불교와 우리 불교의 아름다운 소통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일본불교의 ‘전모’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불교의 빛과 그림자
김호성 지음
정우서적 | 1만원

특히 일본불교학자들의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의 복사와 같은 양상’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 같은 견해에 대해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범불교와 일음교’에서 일본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선택과 전수, 배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회통을 추구하는 우리 불교와의 차이를 밝혀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인권을 생각하며 교토학파 바라보기, 이즈쓰 도시히꼬를 아십니까, 세계는 지금 노르웨이로 가고 있다 등 학문 선진국으로서의 일본 불교와 철학파의 동향을 소개한다. 일본불교의 이해를 돕고자 ‘일본불교 고유명사 소사전’과 ‘한국-일본 불교사 연표’도 붙였다.

이 책은 저자가 2002~2003년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일본불교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쓴 책이다.

책에는 ‘일본’과 ‘우리나라’라는 국수적 틀을 벗어나, 보편적이고 균형감각이 있는 33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은, 한국의 불교학자에 의해서 행해진 일본불교에 대한 최초의 평가보고서이며, 동시에 우리 불교와 불교학의 내일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예견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일본불교를 전공하는 학자가 아니라는 점도 이채롭다.

그래서 저자의 관심은 ‘일본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있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불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주장한다. 저자는 현재 온라인 ‘일본불교사 공부방’ 운영과 비정기 간행물 <일본불교사 공부방> 발행, 일본불교 이해를 위한 ‘일본불교사 강좌 기행’ 등의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진영과 찬문: 참 아닌 참의 세계
신대현 지음
혜안 | 2만5000원

깨달음의 노래를 진영으로 듣는다

도상의 이해 · 찬문 속의 생애 등 고승 만나는 길

고승 진영은 초상화라는 일반 회화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 짙다.

고승 진영 자체로 연구되고 감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상화의 한 부분으로만 인정되어 온 듯한 아쉬움이 크다

<진영과 찬문: 참 아닌 참의 세계>는 진영을 통한 주인공의 일생, 진영에 적힌 찬문을 지은 사람과 주인공과의 관계, 찬문의 뜻과 가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그 진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진영에 그려지는 정형화된 표현들이 의미없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는 것도 가볍게 보지 않았다.

또 찬문은 진영의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그림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건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학술적인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찬문에는 그림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행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오한 철학까지 짧은 글 속에 녹아 있어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경지를 보인다. 그들이 왜 “고승”인가를 그야말로 실감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1부에서 우리나라 고승진영의 역사, 의미, 인물과 사물의 상징성과 표식, 찬문의 세계와 내용, 진영을 연구한 글들이 소개된다.

2부에서는 벽송 지엄, 청허 휴정, 환성 지안, 초의의순 스님등의 대표적 진영 20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그림에 도상적 설명을 붙이고, 그 찬문의 의미와 내용을 통해 보는 고승들의 삶을 해설한다.

부록으로는 본문의 내용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돼 실려있다.

우리나라 불교문화 및 미술을 영어권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시도로 보여진다.

김원우 기자

삼법인과 위빠사나 ‘관계규명’

수행통해 ‘당면문제’ 푸는 길 제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나와 다른 이들의 문제들,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실로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데, 붓다는 그것들의 궁극적 해결을 알려 주었다.

그 해결책이란 간단하다. 즉, 그것에 걸려 있고 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도 없다. 말하자면 그런 문제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다. 만일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 문제들은 실로 문젯거리가 된다. 더불어 그 많은 문제들의 끝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위빠사나의 가르침을 담은 이 책은 불교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내세우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의 ‘다르마’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숲에서 수행을 하는 ‘두타행’을 실천해온 저자의 삶을 통해 치열한 수행의 참모습을 살피도록 인도하고 있다.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아잔 차 | 역자 아눌라 무우수 | 8500원

불교의 교리이자 존재의 특성인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등 삼법인(三法印)과 위빠사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지은이 아잔 차(Ajahn Chah, 1918~1992)는 완고하고도 명쾌한 법문으로 동-서양 불교도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태국의 대선사이다. 아잔 차는 존 카밧진, 샤론 살즈버그, 잭 콘필드 등을 비롯한 서양의 불교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정신적인 스승으로, 현재 그가 세운 왓빠뽕 사원은 태국 내 250여 지부와 전 세계에 수십여 수행센터 및 자매사원들을 갖고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법성게(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의상조사, 정화, 1만2000원, 법공양
· 종교는 하나다	함상호, 1만8000원, 북인
· 잘사는법99	최정희, 8000원, 우리출판사
· 일본다도의 마음	센 겐시츠, 2만3000원, 다도
·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한암대원, 1만3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주문 (02)2004-8219

한국재가불교의 새 장을 열어가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 땅의 불교중흥을 위해 1975년 설립된 (재)대한불진흥원은 설립자인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받들고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불교방송 설립 지원 및 군 포교와 불교종단, 단체 지원, 국제 불교포교, 불서 간행 등을 비롯하여, 오늘날 한국불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육, 학술,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의 최일선에서 국내외 포교 불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02-719-1855, 팩스 02-719-5052 www.kbpf.org

2년에 고등학교 졸업장!

지역에 관계없이 대학처럼운영하는 미륵사 부설 교육청지정 학력인정학교임 학령기를 놓친 스님 또는 불자님에게 고등학교 졸업기회부여!

■ 자 격 : 중학교 졸업자
■ 모집기간 : 2007. 2. 20까지
■ 구 분 : 보통과. 전통예술
(불교미술:단청,탱화, 불교음악:범패)
※ 본교를 졸업하면 범음범패는 물론 대학을 진학할수 있읍니다.
■ 홈페이지 : www.yeun.sc.kr
주간.야간운영
■ 문 의 : 055)583-6300
011-1752-6800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
교장 일광스님

성 명 서

북한 핵개발을 정당화시킨 이재정통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 나라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낼 2007년의 새해가 열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북한판 사설같은 망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神父의 신분으로 통일부장관이 된 이재정은 2일 신년사에서 "북한 빈곤에 대해 3000억달러 수출국으로,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정교 분리를 명시한 헌법이 무시된 채, 특정종교 성직자가 장관이 된것도 천부당만부당 한 노릇인데 하물며 북한 못사는 것이 마치 남한의 책임인냥 말하는 이재정은 과연 이 나라의 통일부장관인가, 아니면 북한의 나팔수인가?

더불어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한 "책임"은 무엇을 뜻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1. 이재정통일부장관이 1월 2일 시무식에서 "북한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실험을 하였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한국의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꼴이다.

2.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정일정권의 폭정에 대하여는 유구무언인 채, '북한의 핵실험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며 남한이 북한의 빈곤을 책임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포기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북한의 빈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세습적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박탈하고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등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통치로 인해 피폐해진 것임은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4.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대북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지원이 진실로 북한의 굶주림을 덜어주는데 쓰여진다면 보다 더 큰 희생도 기꺼이 감내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특히 우리 불교는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앞장서 주도해 온 터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북지원이 소홀하여 북핵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본분조차 망각한 망동일 뿐더러, 이미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켜준 장본인으로서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통일부장관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우리는 이재정통일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권고한다.

2007년 1월 5일

불 교 뉴 라 이 트 연 합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성북구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안정망 구축사업으로 구성한 교동협의회의 운영이 종교적으로 일부 편향되고 종교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우리구 관내 사찰과 불교계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성하였던 교동협의회는 2006년 12월 11일자로 백지화 하였으며, 앞으로는 원하는 종교 단체가 다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참된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성 북 구 청 장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못 생긴 모과 향기는 좋아요”

혜정 스님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은 확고한 신심과 철저한 수행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열쇠임을 강조했다.

새해 벽두는 늘 그렇듯이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설레임. 무언가 이루겠다는 기대감. 하지만 그 속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한 해는 그렇게 시작됐고, 그 시간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해답 구하기는 쉽지 않다.

저마다 삶의 지표가 다르니 사는 방식이 다름은 당연하다. 그래도 모두에게 다르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다운 삶’이다. ‘어떻게 사느냐’를 ‘사람다운 삶’에 놓고 본다면 그리 간단치 않은 화두다.

“마음 다스리는 지혜 가지세요”

“어서 오세요. 현대불교신문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이치가 다 그러니 상심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다행히 폐간하지 않고 신문을 계속 낸다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잖습니까. 그 공덕이 있을 것입니다.”

기자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시더니 내민 손을 꼭 잡은 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을 신문에 꼭 써 주세요”하시며 말을 이으셨다.

“세상살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평탄한 세상살이가 지속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에요. 궂은 날씨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듯이 우리 인생이나 인류 역사나 모든 게 다 굴곡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럴 때에 고자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를 원망하면 더 어려워져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다.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한 순간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도무지 그 마음을 찾지 못한다. 못 찾는 것인지, 찾지 않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목렌즈로 빛을 모으면 불을 낼 수 있지요. 이처럼 마음이 모아지면 어떤 일이든지 성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초점을 모아서 사람에게, 일에게 집중시켜 보세요. <화엄경>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은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요.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것이에요. 마음은 우주보다 광활하고 신비롭습니다. 부처님 8만4천 법문이 다 마음을 두고 한 말씀인데, 정작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자신은 아무 것도 말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하나 설명하는데 45년이나 걸렸는데, 정작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을 찾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찾는 일입니다.”

혜정 스님이 머무는 보은 법주사 사리각 주변은 고요했다. 스님이 기거하시는 처소는 책들이 빼곡히 진열된 책장과 탁자 위에 놓인 시계 하나와 접시 위에 놓인 시들어가는 모과 3개가 전부일 정도로 단촐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1시간 반 정도의 예불과 정진으로 시작하고 저녁예불로 마치는 하루는 늘 여여하다.

“불교는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존재의 본질을 찾는 종교지요. 나는 게을러서 모아놓은 게 없어요. 모아놓은 게 없으니 버릴 게 없지요. 공(空)에 가까이 가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인데, 무엇에 욕심을 내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본질은 무(無)이고, 무의 본질은 공(空)입니다. 우리 육신도 공이고 마음도 공이지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자들에게 수행은 늘 화두다. 특히 생활 속에서의 수행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수행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

“수행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파도치는 물 위에 비치는 달빛같이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실패를 가져옵니다. 수행의 근본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데, 신심이야말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산다고 다 사는 것은 분명 아닐진데, 그렇다고 뾰족한 답도 없다. 2007년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리석은 질문에 혜정 스님은 빙그레 웃으신다. 난데없이 모과를 집으시고는 “이놈은 참 못났는데 향기는 좋아요”하신다. 모과의 향기. 모과는 자신의 생김새를 알까? 자신이 내는 향기를 맡아보았을까?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세요. 당당하고 신나게 그리고 멋있게 사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나고 젊게 살아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거스를 수는 없지요. 그것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속에 뛰어들어 즐겨보세요.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신나게 헤엄치면서 마음껏 멋도 내세요.”

원로스님에게서 멋을 내며 신나게 살라는 말을 듣기는 처음이다. 스님의 모습에는 여유가 있다. 얼굴에 머금은 미소는 맑고 투명했다. 75세라는 나이가 스님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스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수행의 근본은 하심하는 것
> 욕심 넘치면 후회만 남아
> 성불할 수 있다 믿으세요”

선지식을 찾아서 혜정

혜정 스님은 1962~83년까지 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72년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77년에는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법주사 주지와 율주를 지냈으며,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법주사 회주로 법주사 사리각에 주석하고 있다.
1933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19살 때 예산 수덕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혜정 스님은 확고부동한 신심과 철저한 수행을 불자들에게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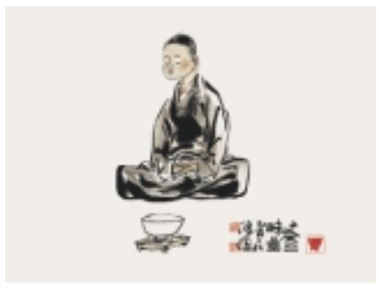


문인화·차·다도구 전문 갤러리로

담원 갤러리 '인사동 중앙미술관'으로 확장 개관

25일까지 '필묵 예술차…' 展
국내 작가 해외 교류도 준비





'솔잎 한줌에 차 한 병 있으니 모든 인연 끊고 이 집에 와 누워 있었네 옛사람들의 결사모임 우습구나 새소리 듣다가 꽃구경한들 무엇이 꺼리낄까.'

1월 12일부터 시작하는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 한 귀퉁이에 적혀진 문구다. 담원 김창배 화백이 운영하던 담원 갤러리가 확장 새 단장을 해 '인사동 중앙미술관'(02-736-7445)으로 변신했다. 8일 개관한 인사동 중앙미술관이 개관 첫 전시로 25일까지 특별기획 개관전 '필묵예술 차…마음으로 보는 차(茶) 세상-담원 김창배 차묵예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담원 김창배 화백이 그려내는 차 한 잔의 여유가 동양의 여백과 만난 작품들을 선보인다. 소박한 인물들이 차를 앞에 둔 채 생각에 잠겨있거나, 차를 음미하는 모습들을 담은 김창배 화백의 작품들은 '끽다거'를 생각나게 한다.

그림 외에 다도구들도 선보인다. 다완, 다반, 차칙, 차호, 찻잔 등 깊은 색감이 뛰어난 다도구들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전시 첫날에는 (주)명선가에서 만들어낸 다식 '차와 함께' 출시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차와 선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인사동 중앙미술관은 전통과 예술의 거리 인사동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 개관했다.

개관 첫 전시를 끝낸 후 26일~2월 1일에는 '수묵화에 핀 매화, 봄차'를 주제로 여류 문인화가 개관 기념 초대전도 기획하고 있다.



담원 갤러리를 확장해 '인사동 중앙미술관' 개관한 담원 김창배 화백.

인사동 중앙미술관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갤러리 버질과 조인해 국내 작가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줄 계획이다. 대관 및 기획전시 전문 갤러리로 운영하며 대형전시장이 사라진 인사동을 지키겠다는 것이 김창배 화백의 생각이다. 일본 중국 유수의 서예학과 미술대학 간 상호교류전 및 견학 기획 초대전도 분기별로 추진 중이다. 저명작가 초청전을 통해 국내외 화단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인사동 중앙미술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이다.

김창배 화백은 "인사동 중앙미술관은 문인화와 차, 다도구 전문갤러리로 우리나라 문인화단과 차 예술문화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관의의를 밝혔다. 강지연 기자

최탁환 씨 두번째 시집 펴내

'산은 꽃잎마다에 들어있다'



한국불교문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시인 최탁환씨가 두 번째 시집 <산은 꽃잎마다에 들어있다>를 펴냈다.

법명이 화엄인 최탁환 시인은 자신의 시작 방향이, 쉬우면서도 깊이를 가진 시, 관념이 아닌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 주제를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의 창출과 그 이미지의 배후에 잔잔히 깔리는 리듬을 가진 시, 그리고 이야기 시를 쓰는 것이라고 밝힌다.

최탁환 시인은 '감나무는 천 개의 손끝에/피가 하얀 꽃잎을 태워서 익힌/주홍빛 감을 매달고 있다//(중략)//관음으로 현현한 감나무'를 노래한다. 시의 제목 또한 '관음으로 현현한 감나무'다. 최시인은 세상만사 모든 것을 불교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그의 시는 불교를 소재로 노래하지 않아도 불교의 감성을 진하게 흘려낸다.

이번 시집은 '연꽃을 보며' '목불은 점안을 하고' '바라춤을 추는 승니' 등의 시를 수록했다. 강지연 기자

불자가수 웅산 뮤지컬 배우로 변신



불자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뮤지컬에 도전했다. 1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서울뮤지컬컴퍼니의 '하드락카페-로스트 인 파라다이스'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킴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2월 1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연에 서기 위해 연말에 예정됐던 아시아 투어는 내년으로 미뤘다.

그래서일까. 극중 마약에 빠지는 장면을 열연한 그녀를 본 한 팬으로부터 '정말 약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연기에 빠져들며 뮤지컬 연기자로의 변신을 인정받고 있다.

웅산은 18세에 단양 구인사로 출가했다가 2년여 만에 환속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 정진하는 구인사 선방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3일 기도를 목표로 구인사에 머물렀던 웅산이 정작 구인사를 떠난 것은 2년 후였다. 7세 때부터 <반야심경>을 암송하게 하고, 저녁시간에 온 가족과 함께 참선과 관음정근을 했던 신심 깊은 아버지의 영향을 은연중에 받았던 것이다.

웅산은 비록 환속했지만 그때 무안 스님에게 받았던 법명 웅산을 예명으로 11년간이나 라이브 전문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재즈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수도"라는 웅산은 "재즈는 구속하지도, 옭아매지도 않은 여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불교의 공(空)과 통한다"고 말한다. (02)3141-1345 강지연 기자

1인 30역 다시한번



불자 배우 김성녀의 뮤지컬모노드라마 '벽 속의 요정'이 2007년 다시 부활한다.

2005년 초연된 '벽 속의 요정'은 '김성녀 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끊임없는 재 공연 요청을 받아왔다. 전회기립박수의 기록을 세우며 큰 화제와 호평을 불러일으켰던 '벽 속의 요정'에서 김성녀는 50여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1인 30역을 소화해낸다. '벽 속의 요정'은 2005년 예술계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예술상, 평론가 선정 우수연극 베스트3, 동아연극상 연기상 등을 수상한 작품이다.

김성녀 '벽속의 요정'
1월 19일~2월18일, 예술의 전당

1월 19일~2월 18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다시 한 번 관객들과 만나는 배우 김성녀의 30색을 만끽해 보자. (02)747-5161 강지연 기자

瑞榮香苑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 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전보문이점차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무공 합장



세계지도자협회부총재
국제지도자협회부총재
혜성합장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 1. 13 (토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공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불화 속의 명장면 (20)

日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유마거사상' (상)

분별 떨쳐낸 순간 꽃은 그냥 꽃일 뿐



그림1 : 유마거사와 천녀, 중국 송대 추정
유마거사도,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소장.

북송대 이공린 작품, 호방하고 품격 높은 필치 한껏 발휘
시선으로 보아 문수보살과 사리불 등장 장면도 있었을 듯
범부와 득도자·거사와 여래는 하나라는 '不二 철학' 담겨

'그때 아리따운 천녀 하나가 유마의 방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림1). 그녀는 곧 대보살들과 대 제자들의 머리 위로 아름다운 꽃비를 내려습니다(그림2). 보살들의 몸에 내린 꽃잎들은 아래로 흘러 떨어졌지만, 대 제자들의 몸에 내린 꽃잎들은 그대로 붙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 제자들은 놀라 온갖 신통력으로 이를 떨쳐내려 했지만, 도무지 꽃잎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유마경: 관중생품(觀衆生品)>'.

유마의 설법에 감동한 천녀가 문득 유마의 방에 등장하면서 그 방에는 가득 꽃비가 내렸습니다. 당황하여 몸에 달라붙은 꽃잎을 열심히 떨어내려는 사리불에게 천녀가 묻습니다. "왜 굳이 꽃잎을 떨쳐내려 하십니까?"

사리불은 "이 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不如法)입니다. 출가수행자가 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기 때문이지요"라고 답합니다.

이때 천녀는 "꽃을 두고 '이것은 법이다(如法) 법이 아니다(不如法), 또는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꽃 그 자체는 수행자인 당신에게 붙어있다 또는 아니다 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쪽이 부적절하다 라고 분별을 하니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법이 아닌 것(不如法)이고, 분별을 하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법(如法)이지요. 그러니 법이 아닌 것은 꽃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난처해진 사리불, 한갓 천녀에게 세존의 지혜제일이라고 불리는 유능한 제자 사리불이 가차없이 당하는 장면입니다. 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달라붙는 꽃잎 꽃잎들. 부정하면 할수록 또는 집착하면 할수록 끈질기게 따라오는 의식의 구렁텅이. 의식적 인식과 분별 또는 차별심을 훌쩍 벗어나 있는 보살들에게는 꽃잎 하나 붙어있지 않았지만, '나는 출가수행자이니 속인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고 우월하다, 그러니 이것은 적절하고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래야만 하고 저래야만 한다'라는 분별심을 아직 갖고 있는 제자들의 온몸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꽃이 붙으면 안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분별심의 작용으로, 정작 꽃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꽃은 그냥 꽃일 따름'이라는 천녀의 말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상기되는군요.

즉 세상의 온갖 사물 및 대상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 또는 분별심이 없으나,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가치를 매겨줄 때,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을 할 때 비로소 그렇게 내가 인식한 대로 반응을 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우리 스스로가 편집적으로 만들어놓은 세상 속에, 즉 내가 본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식으로 만들어놓은 환영의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울며 웃고 기뻐하고 겁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치열하게 살다가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사물은, 또는 모든 대상은 그냥 그렇게 존재할 따름인데 말입니다. 말 그대로 꽃은 꽃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말입니다.

<금강경>에는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我相 나라는 생각, 人相 타인이라는 생각, 衆生相 중생이라는 생각, 壽者相 존재라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또는 어떠해야만 한다는 의식적으로 만든 자아를 버릴 때, 진정 자아를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리불은 꽃을 떼어야 한다는 분별 자체가 커다란 집착을 초래하여,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가두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칫 그릇된 분별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는 편집적이 되어 결국 자신을 그 인식 속에 가두어 진퇴양난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틈을 노리고 온갖 악령들이 달려듭니다.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이라는 다섯 가지 욕망이 더욱 세차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다섯 가지 욕망이 아무리 강해도 또 그로 인한 번뇌가 아무리 강해도 이는 결코 그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즉 색(色), 수(受), 상(相), 행(行), 식(識)의 오온(五蘊)의 늪에 길들여진 그 습관을 끊어낸 이에게는 꽃잎이 달라붙지 않겠지요.

떨어지는 꽃잎에 동요되지 않는 것, 무관심하여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인가 봅니다. 그리고 또 싸우지 않고 이겨야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고요. 바로 진정한 현자는 말하지 않고도, 진정한 싸움꾼은 주먹을 보이지 않고도 이긴다지요.



그림2 : 천녀와 꽃잎

본 그림(1)은 <유마경> 관중생품(觀衆生品)의 천녀가 막 유마거사의 방에 등장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왼손에는 꽃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오른손에는 꽃가지 한 송이를 맵시 있게 들고 서있습니다. 유마거사도 천녀도 모두 오른쪽(그림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을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 유마거사가 문수보살과 그의 제자 무리들과 대담을 펼치고 있었다는 경전상의 정황으로 보아, 아마도 이 유마와 천녀에 대응하는 문수보살과 사리불이 그려진 한 폭의 그림이 짝으로 더 존재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본 작품은 그 필치가 너무나도 호방하고 유려하기에 이공린(북송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문인화가)의 작품으로도 칭송되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통 유마는 아름답고 반듯한 보살과는 대조되게 거친 거사(출가하지 않은 속세의 불교신자)의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고졸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 작품 속에서는 매우 우아하고 세련된 필치로 묘사되어 유마의 실상 높은 품격과 상서로운 기운이 한껏 발휘된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유마는 보통 어수룩한 속인 차림새에 한 쪽 무릎을 세우고 팔걸이에 한 팔을 걸치고 비스듬한 자세로 기대앉아 있습니다. 또 왼손에는 주미(麈尾, 고라니 꼬리로 만든 먼지떨이, 이는 청담을 하던 신선 또는 불도들이 많이 지녔던 지물)를 가볍게 들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본 작품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당(唐)나라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석굴암의 유마와 문수보살의 좌상에서도 확인됩니다.(다음 연재21 그림3)

'천녀여, 그대는 굳이 여성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 몸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라는 계속되는 사리불의 역량 딸리는 질문에, 그녀는 사리불의 몸을 천녀 여성의 몸으로, 자신의 모습을 남성 사리불의 모습으로 맞바꾸어 버리는 신통력을 부려, 사리불 스스로에게 결국 존재의 본질에는 그 차이가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스타일 다 구긴 사리불은 체면불구하고 '깨달음은 언제 오는 것이냐'며 천녀에게 묻습니다. 그때 천녀는 '그대가 정작 범부와 다름없게 될 때'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잠시 동안의 천녀 출현으로 우리는 천녀의 정체와 나아가 유마의 진정한 정체까지, 얼핏 머릿속을 가로지르는 힌트를 받게 됩니다. 범부와 득도한 이는 하나, 거사와 여래는 하나, 바로 그 유명한 불이(不二)의 철학입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참회 기도의 생활화로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주지 혜운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전화 053)622-0336

대한불교조계종
모선암
주지 탄하
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254
전화 054)832-2510

대구사원주지 연합회
신도회장 김대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
전화 053)629-9500/팩스 053)629-9600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정사(구.송향사)
주지 정환
대한불교 보건복지대학
(자격증취득대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103-1
전화 053)312-5689
휴대폰 011-511-9635
khn5689@yahoo.co.kr

대한불교조계종 9교구
대산사
주지 혜원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1143
전화 054)372-6534

수림사
(구. 용암사)
주지 혜광
■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861-98(2층)
전화 053)983-3920

대한불교 조동종
비슬찰 혜광사
(사)能人선원
선원장 진일(승려시인)
세계건강협회 극락관 원장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8동 2040-3
전화 053)473-3131, 3269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사 미륵사
주 지 석청송
미륵사 신도회장 최병주
(미륵사 대원지장회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702
전화 053)981-1199 / 상담실 053)982-0683

대한불교 조동종
선광사
주지 예산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48-1
전화 053)963-9945/팩스 053)963-9944

문경새재 내 주흘산
혜국사
주지 보경
대중일동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3번지
전화 054)571-0341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주지 현선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44
전화 053)743-7070

(재)한국불교 법륜종
법천사
주지 석법천
• 지장보살점안법회
• 인도부다가야 진신사리 1과 봉안법회 계획중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26
전화 054)474-3855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주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역사와 문화의 산실 삼국유사 저술지」
주 지 초암 상인
신도회장 배창순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동 612
전화 054)383-1161

염불선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578
전화 053)782-0120

대한불교원효종
약천사
불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지 덕운(운혜)
■ 울산시 북구 어물동 1236-3
전화 052)287-6952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 도광사
주 지 법 성
신도회장 조경태
관음회장 최상만
지장회장 허묘임
■ 대구광역시 대명5동 1708-6
전화 053)653-8583(팩스겸용)622-8587
휴대폰 011-813-8587

대한불교원효종
매봉산 고성사
주지 고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755
전화 054)977-0962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지 덕현
신도회, 반야회, 구도회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981
전화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석가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전화 053)791-8137/팩스 053)792-0784

삼천불 조성불사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주지 도성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702-6
전화 053)476-3320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성공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2리 865
전화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금곡사
주지 고경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274
전화 054)971-7561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임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전화 054)247-2729(팩스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전화 053)941-350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선학원
청수사
주지 종열
[부설] 청수어린이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117-36
전화 053)741-2562753-2561
(청수어린이집)

한국불교태고종
청룡사
대중일동
● 복지불사안내
· 매월 독거노인 지원 · 어르신 무료관광
· 매주 노숙자 무료급식
· 매년 경로위안 문화예술제 봉행
· 독거노인, 장야인 목욕봉사
· 영안실 염불기도 봉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41-16
전화 053)656-5266

군장병 후원사찰
정토원
주지 고봉
신묘장구대다라니 제5차 100일기도입재
(불기 2551년 1월 26일 성도재일)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561
전화 053)984-0409

대한불교조계종
장암사
주지 도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83
전화 053)762-3800

월인사
주지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605
전화 053)767-3971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지 도 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404
전화 053)614-3087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유치원
주 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전화 053)257-1914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주지 선 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하루헌카페 회원모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 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전화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법 장 사
주지 철 우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75
전화 054)772-4840

대한불교조계종
도 봉 사
주지 서 운
신도일동
■ 전북 칠곡군 석적면 성곡리901
전화 054)973-6455

대한불교조계종
법광사부설 달마선원
선원장 효 신
(태극권 동우회 모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660번지(어린이 회관 옆)
전화 053)761-6943/팩스 053)766-6943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1152-5
전화 053)982-9329/팩스 053)983-169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혜주 능 인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화 054)464-4725/팩스 054)464-4735

대한불교조계종
극 락 사
주지 원 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11
전화 054)972-1275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골 굴 사
(사)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주지 이사장 적 운
골굴사 신도
선무도 대금강문 문도 합장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
전화 054)744-168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526
전화 054)931-7777, 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시 래 사
주지 묵 조
■ 경북 경주시 시래동784
전화 054)746-1456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지 보 원
• 매주(土) 저녁 8시
·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
(문양역에서 저녁 7시 30분 차량출발)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1189
전화 054)931-0044

대한불교조계종
호 암 사
주지 현 종
(백년차 생산판매중입니다)
■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293
전화 054)541-7863

대한불교조계종
승불사 구미불교대학
주지 청 호
■ 경북 구미시 원평동 169-6
전화 054)455-5379(불교대학)
054)371-5379(청도승불사)

대승불교 관음종
법 장 사
주지 법 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838
전화 054)636-2201

한국미륵불교
천 용 사
주지 덕 련
■ 경북 구미시 원평2동 165-5
전화 054)451-7769

대한불교총원효종
미타산 호암사
종정 송철호(호암)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051-1
전화 053)983-2157/팩스 053)986-0500

대한불교
영천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603-2
전화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대승불교관음종
보 림 사
주지 도 경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471-1
전화 054)373-4266

대한불교원효종
불광사 태극정사
주지 법 혜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174-122
전화 054)843-7605

정 토 사
회주 수 성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94-2
전화 053)761-8676/팩스 053)761-8682

원 진 사
주지 자 신
(스님의 원력과 정성으로
국내최초 8m자갈 돌탑 조성)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1-2
전화 054) 274-9443

도 솔 암
주지 법 산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116
전화 054)337-3687

송 학 사
주지 보 각
「신비의 氣 달마도」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20-1
전화 053)763-9881

금 화 사
주지 진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19
전화 053)616-9396

대해사 국제선원
사부대중일동
http://www.daehaesa.org
■ 경북 경산시 대동 160-6
전화 053)818-4055/팩스 053)294-0408

대구화엄불교대학
회주 진 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861
전화 053)754-4962

불교자원봉사단 불교호스피스
단장 정 법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885-4
전화 053)767-8105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지 성덕
대중일동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전화 054)976-8116
팩스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보 림 사
주지 선주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산67
전화 053)614-4526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대원불교대학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
주 지 용 담
신도회장 평등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재어린이집
경북 안동시 목성동 57-1번지
전화 054)858-2630(대원사)
054)855-6033(어린이집)
054)859-7230(불교대학)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전화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 화 사
호계불교대학
주지 덕륜
호계불교대학
재학생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
전화 052)293-5550
팩스 052)293-5540

대한불교원효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불은사 주지 서 응
종무국장 고성사 주지 고 성
규정국장 미륵사 주지 적 현
교무국장 미륵암 주지 보 현
재무국장 정현사 주지 진 율
사무국장 불광사 주지 법 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42-7
전 화 053)586-4700(종무원)
053)584-9149(종무원장)
휴대폰 011-525-1717
팩 스 053)586-0078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석 담
총무국장 진 송
재무국장 지 현
홍보국장 고 봉
재무국장 지 현
감 사 도 정
대구교구종회의장 지 언
회원종도 일동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249-11
전화 053)854-1417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김법운 (칠곡 동명사)
부 원 장 전민덕 (안동 유일사)
총무국장 권혜공 (안동 연봉사)
재무국장 이혜융 (경산 불종사)
사회국장 서지산 (김천 월정사)
규정국장 이충래 (울진 영명사)
서무과장 류지화
주제기자 서지산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 265
전화 053)853-4339
팩스 053)853-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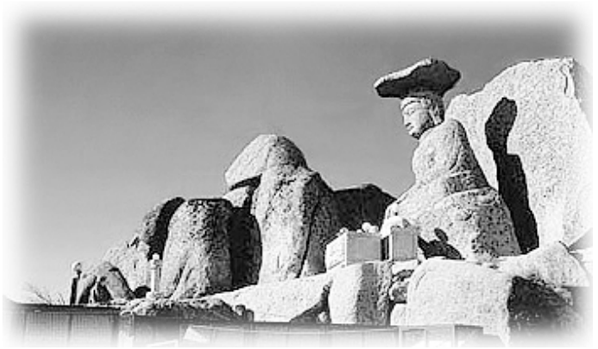
대한불교 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서덕재
신도회장 김정길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대 한 불 교 천 태 종
울 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최영해
남 양 성 인 사
신도회장 정수석 外
신도일동
태 하 삼 도 사
신도회장 김 곤 外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전화 054)791-2471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전화 054)954-8000(代)
팩스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 건설 업체
대 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
(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053)811-0337
칠곡도량 053)312-8221
구미도량 054)452-6636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한가지 소원성취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 본 사 (갓바위)

대 중 일 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www.seonbonsa.org
전화053)851-1868(선본사) / 053)851-1869(갓바위)



대행스님

진짜 길잡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문 새해를 맞이해서, 묵은 마음들을 털어 내고 자성의 불을 밝혀서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불씨를 틔워 주십시오.

답 올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한마음의 도리에 더욱 정진하셔서 가정에 병고 액난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살림살이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고, 기어 다니는 벌레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역시 그렇고,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현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돼야겠죠. 하여튼, 아마도 제가 말을 많이 했다면 많이 했고 안 했다면 안 했을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없어져 버리면서 다시 생(生)하고, 다시 생하면서 또 없어지곤 합니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이 됐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의 해답을 꼭 푸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부터 완성해야 내 골수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이니 이 세상을 다 깨달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점에 있어서 통달하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린 죽어서도 지금 현재 의식 그 그릇대로 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허무가 아니라 무상(無常)이라고 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서지고 변해지고 죽고, 천차만별로 변화돼 가고 이럽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무상이겠죠.

한마디 언급할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천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혹성이라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바로 별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색(色)은 공(空)하고, 공한 것은 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도 수차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는 까닭은 뭐냐고 또 묻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까닭 말입니다. 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동방에는 아촉으로 이름을 지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지어 놓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지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지어 놨단 말입니다, 이름을.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천백억화신의 이름이 다 부처님의 마음일진대 어찌 여러분이 그 말만 듣고 이 이름에다가 빌고 저 이름에다가 빌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참마음은 발견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완성 못하고 항상 헤매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뿐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볼 때 전쟁이 일어나고 공해가 심각해져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욕심이 과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착이 있으면 욕심이 불고 욕심이 붙으면 일을 저지르는 거죠. 너무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여러분이 모범이 돼야 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빗나가고 그게 뭉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서밖에는 화목하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병고를 낫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액난을 물리칠 수 없다. 유전을 물리칠 수 없다.' 하고 믿고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화목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이탈을 안 가져오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정신력이 아주 투철해지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병고액난에 휘달리는 것도 그렇고, 항상 말했지만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진짜 계시나요?

문 스님, 저는 어린이 법회에 다니면서 동생과 싸움도 하지 않고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를 한번 돌아봐도 선원에 가서 절을 할 때 그냥 할 때도 있지만 마음에서 한두 가지는 꼭 마음을 내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들도 다들 한두 가지씩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절을 하는데 정말 부처님께서는 진짜 계셔서 그것들을 다 듣고 다 이루어 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앉아서 절만 받으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스님, 저의 궁금증을 꼭 풀어 주세요, 네!

답 우리 에너지가 불(佛)이고 불성은 바로 에너지야. 에너지 주장자. 그래서 밤이면 에너지를 조성하고 낮이면 그 조성한 에너지가 쓰이고 이러지. 이게 현실이거든. 우리 어린이가 어려서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니? 생각해 봐라. 그런데 단 일 분이라도 어디 앉아서 참 즐겁게 한번 한 발을 떼 놔 봤니? 한 발을 참, 감이 없이, 떼 놓은 사이 없이 떼 놓을 수 있어야만 극락이거든. 그런데 극락이라고 좋다고 할 게 없다 하는 걸 말하고 싶어, 또.

전자에는 부처님 하면 다 그냥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참 부처님이 장하시구나! 부처님은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무도, 어린애들 기를 때 밑씻어 주고 코 씻어 주고 하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심부름하는 어른과 같아. 그런데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기만 하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이 되지. 근데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단다.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대략 다 알겠지만, 밤이면 저런 데로 돌아서 이렇게 사람의 기척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래도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야.

다 깨치면 어떻게 사시나, 다시 재생을 해서 또 나오시나 이러는데, 보니까 재생을 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시고는 또 화하지. 상대방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누군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모습이 되지.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지. 지팡일 짚고 다리를 질질 끌고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아이, 일어나!" 그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치니까 그냥 일어났어. "다리 인제 안 아픈가?" 하니까 "안 아픕니다." "그럼 어서 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얼어 죽어. 얼어 죽진 않아야 공부를 하지."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돌아서니까 없어졌더라 이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없어졌느냐는 얘기죠. 그건 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도님들을 위해서 요거 한마디만 더 하죠. 옛날에 산에서 비구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동짓날이 돼서 팥죽을 쑤게 됐어요. 팥죽을 쑤려고 하니까 불씨가 꺼졌더랍니다. 옛날엔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야지 불씨만 꺼트렸다 하면 공사가 벌어지고 야단나죠. 근데 그 불씨를 꺼트려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이 그날 산더미처럼 와서 스님네들이 영 불씨를 얻으러 갈 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집 안에 들어와서 그냥 굶고들 있는데 나한 방에서 말입니다, 나한이 있는 방에서 제일 조그만 동자 나한이 나갔어요. 나가서 불씨를 얻어 온 겁니다. 불씨를 얻으러 가니까 "아 참,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쪼끄만 동자가 왔느냐?" 그러니까 "행자는 스님네가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해야만이 행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씨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얘, 추운데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 하고 자꾸 권하니까 들어가서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먹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먹는데, 방편으로 먹는 건 똥도 안 누죠? 똥을 만들어서 누면 그건 방편도 아니고 나한도 아니죠.

그래 그렇게 해서 불씨를 얻어 가지곤 갔단 말입니다. 가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내 놓고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불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 스님네들이 나가 보니까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팥죽을 쑤어 가지고는 배고픈 걸 다 면했죠. 옛날에는 팥죽을 쑤다가 그 맑은 물을 떠서 무명 영가들, 즉 말하자면 사람들만 무명 영가가 아니니까, 무명 영가들을 위해서 다들 끼얹어 주고 그랬는데 그 이듬해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주지 스님이 저 아래 마을에 내려가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니, 동자를 내려 보내서 불씨를 얻어 가시더니 왜 불씨를 안 주십니까?" 하더랍니다. 불씨를 얻어 가면 불씨를 꼭 갚아야 되거든요. 왜 불씨를 안 주시냐고 하니까 주지 스님이 "저희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주지 스님이 올라와 가지곤 "너희들 불씨 얻으러 간 예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모두에게 물었어요. 한 사람도 얻으러 간 예가 없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조그만 도량이니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곤 방마다 다 열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한 방 맨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동자 입술에 팥죽이 묻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주지 스님은 '야! 법이 이렇게 중대하고 이렇게 묘하고 이렇게 광대한 것을 우린 몰랐구나!' 이럭하고선 그 나한의 입술에 붙은 죽을 씻어 주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러지만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마음은 너무 많아서 없는 게 마음입니다. 부처도 없는 게 부처죠. 어떻게 있는 게 부처입니까? 부처가 너무 많아서 없는 게 부처다라고 했습니다. 많아서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24시간 살아나가시는 데도 함이 없이 하고 있구나. 우린 여태껏 뛰고 있었는데 뛴 사이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뛴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묘한 도리로써 사십니까? 오늘 일을 하시는데도 그냥 눈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조거 보고.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진짜 내면에 공마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공치기를 하거든요. 공치기 하면 그 공이 서천국에도 도리천에도 어디든지, 동천이든 북쪽 북두칠성 도량이든지 뭐 어디든지 다 왕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 내면에서 공을 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귀찮아서 어떻게 의식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소 눈을 봐도 한 찰나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스님이 게을러서 영 일을 안 하다가 소가 됐답니다. 그런데 스님네들이 향나무를 못 얻어서 마루를 못 놓고 있는데 거기에 향나무를 실어다 주고 죽었다고요. 간략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재생이 돼 가지고 스님이 됐다고요. 그 입산한 사람이 10년 후에 "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인연을 맺고 다시 안 나와도 될 것을, 다시 안 나오고 자네들을 만나도 될 것을 인연을 맺어서 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주 귀찮게 돼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내 모습은 물질계고 모습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머리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잘들 좀 생각해서 실천해 보시면 살아나가는 데 아주 유익하고 좋을 겁니다.

부끄러움 없는 불자가 되려면

문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다 보면 '지심정례 공양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이란 대목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의 뒤를 이어 진리의 등불을 전해 오신 조사와 종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식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공양 올립니다.'라고 읊조릴 때마다 그토록 어렵게 구한 도인데 나의 삶은 과연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요. 스님, 정말 부처님과 제대선지식께 부끄러움 없는 불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요?

답 이 도리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살아나가면서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저거 보면 이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리 가면 저리 가야 하고, 매사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망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이 없이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산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 내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도리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호응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몸뚱이도 없겠죠. 우리는 지수화풍에서 나왔고, 또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아요. 먹고 살고 또 요다음에 갈 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니 다 값는 거지요. 이렇게 정확해요.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전부가 말입니다.

이 모습은 물질계입니다. 그리고 볼 수도 쥘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자기가 이렇게 살아 있는 이상 정신계는 자기한테 있단 얘기지요. 그거는 없다 있다를 논의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살아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인데 그 불성을 거꾸로 한번 말해 보세요. 성불입니다. 불성을 거꾸로 한번 말해 보시면 성불이에요. 그래서 '성불과 불성이 둘이 아니다. 네가 너부터 찾아라. 너부터 믿고 찾는다면 네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부모 자식 형제 인연을 짓고 세세생생 고생 안 하고도 훨훨 벗고 자유자재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응아! 하고 나오면 죽는 날까지 그 기간을 채우려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죽으러 말입니다. 근데 산다는 것이 죽으러, 기간을 채우러 가는 것이라 한다면, 그 미리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미리 좀 죽으면, 삶이 없이 산다면, 하는 바가

☞B14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현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마음공부를 한다면
내면에 공마당을 크게 만들어 놓고
공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체를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아야

☞B13면에서 계속

없이 한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고개 뻣뻣이 안 하고 눈 돌리지 않고 항상 자비하고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에 있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코 자기가 알아야 될 문제, 그것을 아셔서 굴린다면 얼마나 이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원 스님이 "보꾹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봇장에 뭘 어떡해? 이 세상에 팔만대장경이 있다 할지라도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만 한다면 만법을 들이고 낸다 하더라도 조금도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책이 그 다섯 마디 안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 그렇게 조성해서 남들이 모두 단 한 줄거리라도 알게끔 해!" 그랬죠.

우리가 밤이면 자죠? 낮이면 깨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면 와선이고 앉으면 좌선이고, 일을 하고 책을 보면 바로 행선이니라. 이 모두가 선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너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놔라." 하셨습니다. 그냥 놓지 못해서, 죽을 때도 이 몸을 바로 벗지 못하고 몇 해씩이나 고생을 하고 똥을 싸고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설 거사 얘기 들으셨죠? "그저 난 가야겠다." 그러면서 앉았다가 그냥 가셨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이 모습은 집이에요. 자기 시자면서 집이라고요. 그래서 홀딱 벗어 놓고 '너 그동안 잘 살았어. 잘 있어. 예전에 내가 너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은 시자로 쓸 양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인제 너는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고선 딱 나왔단 말입니다. 또 딸은 딸대로 가죠. 밭에서 일을 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먼저 가셨다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급하니까 그냥 괭이 든 채로 갔단 말입니다. 부인은 김을 매다가 그냥 호미 자루 든 채로 또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벗을 수가 있어야만 우리가 불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뜻으로서의 불제자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착이 있으면 욕심이 붙고 욕심이 붙으면 일 저지르게 되니 너무 과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그리고 막막한 미래 등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숨 쉬는 것도 버겁고 힘이 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정신 차릴 수 있게 한마디만 해 주세요.

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생각에 모든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괜히 창살 없는 창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예처럼 이끌려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쓰러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쓰러지고, 중심을 세우지 못하니까. 예를 든다면 맷돌에 심봉이 꿰어지지 않았으니 맷돌이 이탈될 수밖에요. 물건을 넣어도 갈려져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우리 몸뚱이 속에 수많은 인과를 얻어서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소치로, 자기의 각본대로, 연예인들이 각본대로 연기를 하듯이 그 저 속에 든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탓입니까.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남이 나를 못살게 굴다가 죽였다 할지라도 자기 탓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 오히려 그 사람을 수고를 시켰으니까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자체로써 나를 다지기 위한 내 주인공 참 부처님 자성신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둥글게 쳐 주시는, 그런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사람을 수고만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앞에 닥쳐오는 그 모두를, 내가 죽어 가고 아프고, 병신이 돼 가고 가난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하고, 당신은 공했으니까 그저 죽어야 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왜 죽어야 하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가끔 했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너는 죽어야 나를 볼 수 있느니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봤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너로 하여 나를 보는 거지 네가 없다면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없다면, 네 자체의 주장자가 없다면, 나를 똑똑히 볼 수가 없고,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 네 주장자가 따로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길잡이는, 진짜 길잡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한테 고(苦)라는, 업보라는 그 누명을 벗겨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곧이듣고 자꾸 흔들리고 속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갈 것이고 어떠한 자갈밭이라도, 어떠한 가시밭이라도, 어떠한 낭떠러지라도 서슴없이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나로 인해서 모든 걸 알았기 때문이죠. 내 몸속에 있는 인연에 따라서 모두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악의 조건이든 선의 조건이든, 인연에 따라서 내 앞에 온 것이니까 나는 바로 배의 선장이다. 그럼 내 한생각에 이 모든 마음들은 따를 것이다. 그러면 한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정된 관념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의해서 잘나잘나 돌아가니, 이것은 그 선장 하나마저도 없는 마음, 거기에서 모든 게 가지각색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지금 고정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걸어올 때 뒷발자취가 없듯이, 저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서 팽개치고 여기 와서 앉으셨듯이, 우리는 금방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팽개치고 일 보러 가듯이, 일을 하다 금방 팽개치고 또 사랑하듯이,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그렇게 순간순간 만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옮겨 놓고 저렇게 옮겨 놓고,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간다 온다도 없이 이렇게 여여하게 그냥 흐르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 산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마세요.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천도 좀 시켜 주시오." 하니까 "허, 본래 살아온 게 없다면 죽을 것도 없거니와." 하고선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천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무색하겠습니까만 그것은 그 즉시에 요리가 된 것이고 그 즉시에 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물질 본위만 알지 보이지 않는 50%의 그 영향력은 모르고 사시기 때문에 자유권을 얻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여라도, 누가 이리로 가면 나쁘니 이사를 가지 마라, 부적을 가져라, 또 무슨 고사를 지내라, 뭐 크게 차려 놓고 제사 지내라 이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데 속는다면 여러분은 한시도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이사 가는 날도 내가 이날 갔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에요. 내가 집을 짓고 싶다 할 때에 거기 지으면 그냥 부처님의 법이니 내가 어디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것을 논의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고귀한 보배 속에서 바로 자기 마음이 나오는데 찰나찰나 생각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법음이 아닐까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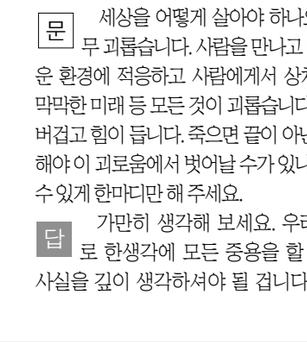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순모 손뜨개 모자.목도리

한올한올 직접손으로 뜨게질한 어머니정성이 고이깃든 고급 순모 손뜨게모자.목도리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코저 합니다.

겨울 나시는 스님 선물용으로도 좋으시고 목도리는 일반 어는 누구에게나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 소재:wool 100%
- 색상:회색
- 길이:170cm × 넓이15cm

- 손뜨게모자 목도리 1set구입시 58,000원
- 2set구입시 106,000원
- 목도리만 구입시 38,000원

도매구입 문의

■ 제조 판매원 : 한새올 승복점

TEL 051) 644-6624

H·P 010-4579-6636

http://www.hansaeol.com

입금계좌 기 업 은 행 096-045672-02-016 새마을금고 1315-09-003257-4 (예금주 :배재훈)

제1기 수행 교실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3개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최고의 강사들에 의해 격조 높은 강의가 진행됩니다.

교 육 내 용

- 근본불교의 수행체계와 방법 – 붓다락키타 스님(보리수 선원장)
-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법 – 원철 스님(조계종 기획국장)
- 대승불교의 수행체계와 공관법 –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

■ 교육일시 : 2007년 1월 16일 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유마선원 수행교육원 ☎ 02)737-8227

■ 위 치 : 종로구청옆 두산위브 217호 (지하철 종각역, 안국역 하차)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지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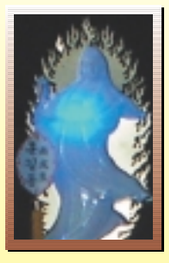
바로보인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개원하시는 스님, 인등을 교체 하시려는 스님 이제 인등 전면에 설치하십시요!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오행 관음인등 출시

인등을 밝히는 의미는 성불의 시작이며 탐,진,치 삼독심으로 얽힌 무명을 소멸하고 재앙을 물리쳐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자님 다니시는 사찰에 매년 새해에 꼭 인등을 밝혀 업장소멸하고 만사형통 누리소서...



오행 관음인등의 장점

인등실제크기 : 가로7.5Cm 세로13Cm 입니다.

사용장소 : 각사찰 및 철학원,그외 인등을 밝히는 모든곳

복잡하던 전선이 없고 열의 발생이 없으며 LED전구를 사용하여 수명이 반 영구적이고 전력소모량이 적고 아답터 1개로 130개의 등을 켤수 있습니다.

고정식 인등이 아니고 탈,부착이 자유로우며 녹,적,황,백,청색의 빛은 부족한 오행을 보강해 주며, 점등시 주,야에 디자인이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본 제품은 실용실안 출원 제20-2006-0028648호 입니다.

오행 관음액자

오행관음은 불자님 가정에 액운을 막고 불심을 증장하여 무량복덕,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각 가정에 소장하시고 일심발원하여 성불하십시요.

제작 및 판매 불교명품 도경 직통 010-8337-7759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신도회
대구광역시 신도회
회 장 장영관
임원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14
전화 053)253-2886, 252-9485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선원
(사)아헹가요가
사부대중
한글창 홈페이지 "아헹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전화 053)981-3553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대중일동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팩스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 지 종 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151
전화 053)768-3882

대한불교조계종
지 장 사
주 지 지 형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36-10
전화 053)755-9817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불광불교대학
● 신입생 수시모집 ●
· 근본교리반 · 본과반 · 경전반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 가능(선착순 입학)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
♦알차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알기쉽고 재미있게 강의
■ 불광불교대학 사무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2동 1828-1
전화 053)656-6766
홈페이지 www.bulkwangsa.co.kr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사
동화사 (직할포교당)
주 지 지 열
사부대중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전화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 운 향 당
주 지 능 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전화 053)933-6371~2/팩스 053)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보 림 사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471-1
전화 054)373-4255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주 지 경 희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전화 053)471-4812/팩스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지장성지
반룡사 불교대학
회 장 법 륜
신도일동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187
전화 054)954-1498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대구포교원
반 야 선 원
회 장 법 륜
신도일동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187
전화 054)954-1498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 포교사단
단 장 최문성
단원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113-4(3층)
전화 053)745-4108/팩스 053)745-4109

대한불교원융종
황 불 사
주 지 해 안
신도회장 원청덕
신도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3리 223
전화 054)292-0828~9/팩스 054)292-0820

최 정 사
주 지 금 봉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동리 302
전화 053)767-4860

(재)선학원
용 산 사
(사회복지법인 기림원 연꽃어린이집)
주 지 도 명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매전면 내동 822
전화 054)372-7739

대한불교천태종
황 해 사
주 지 용 암
미륵사 신도회장 최병렬
신도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20
전화 054)277-3611/팩스 054)277-3644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학교
이 사 장 장 윤
교 장 김용태
교 감 이종서
교 법 사 일 릉
법인사무국장 김영현
행정실장 이은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전화 053)764-0802

天明寺 혜 정 원
주 지 혜 정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08
전화 053)986-8096, 7790, 0111

(株)玖峰 · 鍍金 · 精工
ISO 9000:2000인증업체 / QS 2000-1998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구봉정공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 053) 351-0009, 4856 /FAX : 053) 352-1717
(주)구 봉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 053) 582-0156 / FAX : 053) 582-0157
구봉도금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 053) 581-0009, 8907 / FAX : 053) 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고등학교
이 사 장 장 윤
교 장 김태욱
교 감 양근식
교 법 사 이아용
법인사무국장 김영현
행 정 실 장 김흥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전화 053)764-0805

델 타 석 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 판매
(신속공급)
대 표 보경(박성일)
■ 휴대폰 016-531-5006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증명 고 산
회주 현 성
주지 성 륜
사부대중 일동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전화 055)672-0100, 672-0489
팩스 055)692-0481

대한불교 조계종
월 봉 사
울산시립노인요양원
룸비니 유치원
주 지
원 장 오심
신도일동
임직원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60번지
종무소 : 전화 052)251-4602
유치원 : 전화 052)236-2626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지구 37B3N
요양원 전화 052)246-8061~2

대한불교 조계종
용 연 사
회 주 지 성
주 지 상 원
신도일동
대구지하철 대곡역에서 달성5번
버스가 사찰(용연사) 경유 노선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많은 관람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삼 보 불 교 사
(불교용품전문)
현진 이한득 합장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146
전화 053)257-7578, 256-0443
휴대폰 011-526-4058

DCI(디씨아이)
대 표 김상진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345-7
포항 철강4단지 3B/7L
전화 054)276-1072(열처리),
054)276-1167
팩스 054)276-1168
휴대폰 011-503-9196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謹 賀 新 年

백용성조사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 성역화불사 추진도량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지도법사 불심도문

회 장 한 수 승 행

외 법사단 고문진 회장단 화주진 회원일동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 전화 063)353-0108 / 팩스 353-8500

大韓佛教 曹溪宗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聖居山 晩日寺
Seonggeo Mt. Manilsa Temple

마가(摩迦) Ven. Magga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62
전화 041)622-1190 핸드폰 011-222-9241 http://cafe.daum.net/jurira

[나누는 기쁨 공동체에서 하는 일
특강프로그램(2~4시간)]

- 자비명상
- 응어리 풀기
- 집단상담
- 마음나누기
- 교육, 상담프로그램
- 기업연수
- 행복연습
- 개인상담
- 가족상담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진화

신도회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팩스 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광주포교당

여의산 무 각 사

주지 광 민

전화 062)383-0108

■ 월요법회: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30분
■ 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 신중기도: 매월 음력 1-3일 오전 10시
■ 지장기도: 매월 음력 18일(지장재일, 선망부모 천도재)
■ 관음기도: 매월 음력 22-24일(관음재일)

전통찻집 연 다 원 062-375-6056
불교용품/불교서적 불일서점 062-372-0108

사회복지법인 관 음 원

<부설> 무량수 요양원(무료 노인요양시설)

대표이사 해월 선래

임 원 성공 각우 각진 김옥남 권민경 이경태
시 설 장 김명수 외 직원 일동

법인운영위원회, 시설후원회, 자원봉사단 일동

후원금 계좌 : (농협) 903-01-300617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119-108번지
법인사무국 051)553-9458
요 양 원 051)552-7900
F A X 051)552-7212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신행학교, 禪(선)불교대학원

선원장 정 여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다도회, 어린이회,
선림회, 지장회, 관음회, 교무위원, 선불교대학원
기초교리반, 금강경반, 육조단경반, 참선수련반

■여여선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Tel. 051) 853-5486~7/ Fax (051)863-6422
http://www.yeoyeo.net(한글"여여선원")
■여여정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055)355-9290~1